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2 K리그 기술보고서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2시즌 K리그의 경기 데이터와 전술·전략을 집대성한 총괄 분석보고서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하였습니다.

2022년 K리그에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K리그1에서는 울산이 전복의 6연속 우승을 저지하며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K리그2에서는 광주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조기 우승을 확정해 강등 1년 만에 K리그1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위권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인천이 리그 4위로 구단 사상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했고,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갔던 강원이 반전에 성공해 파이널A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승강플레이오프에서도 각본없는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K리그1으로 승격된 대전과 강등된 김천, 잔류에 성공한 수원과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안양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기술연구그룹(TSG)이 한 시즌 동안 펼쳐졌던 멋진 승부의 순간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했습니다.

2022시즌을 관통했던 키워드들과 주요 지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득점, 세트피스, 역습, 압박, 빌드업, 점유율, 크로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각 팀 별 전술적 특징과 강점,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자료 영상을 삽입하여 팬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2022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선수단,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K리그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통해 더 흥미로운 K리그, 더 과학적인 K리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 오 갑

CONTENTS

용어정리	BEPR011 데이터 정의	02
TSG	2022 K리그 TSG(기술연구그룹)	03
	INTERVIEW 기술위원장 박태하	04
01	2022 K LEAGUE OVERVIEW	06
	THE STORY OF K LEAGUE1 2022	08
	INTERVIEW K리그1 우승감독 홍명보	16
	INTERVIEW K리그2 우승감독 이정호	18
	TEAM OF THE YEAR	20
02	TALKING POINTS	24
	TOPIC 1 PPDA(압박 강도)의 증가	26
	TOPIC 2 광주와 대전이 K리그2를 지배한 방법	27
	TOPIC 3 점유율의 양극화	28
	TOPIC 4 타깃형 스트라이커 트렌드	29
	INTERVIEW K리그의 스카우트팀 포항스틸러스 & 대전하나시티즌	30
03	ANALYSIS	32
	GOAL SCORING 득점 분석	34
	SET PLAYS 세트 플레이 분석	38
	COUNTERATTACK 역습 분석	40
	PRESSING 압박 분석	42
	BUILD UP 빌드업 분석	44
	GOALKEEPING 골키퍼 분석	46
	POSSESSION 볼 점유 분석	48
	CROSSING 크로스 분석	50
04	TEAM PROFILES	52
	K리그1	54
	K리그2	66

BEPRO 11

xG(eXpected Goals) | 기대득점. 특정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유효슈팅 | 골대 안으로 향하는 슈팅

탈압박 | 공을 소유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압박을 벗어나 공 소유를 유지하는 행위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행위의 모음.

시퀀스 시작은 곧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 슈팅, 볼 아웃 등 상황에 의해 종료됨

슈팅 시퀀스 | 슈팅으로 이어진 시퀀스

득점 시퀀스 | 득점으로 이어진 시퀀스

키패스 | 슈팅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공격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공격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중원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중원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수비지역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하였을 때, 수비 지역에서 시작된 패스

장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패스

중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패스

단거리 패스 | 패스의 거리가 15미터 미만인 패스

전진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전방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횡 패스 | 패스의 방향이 좌우 측면 12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백 패스 | 패스의 방향이 후방 60도 범위 내로 향한 패스

PPDA(Passes Per Defensive Action)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수비 시도 행위 당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로 계산됨

공중볼 경합 |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그라운드 경합 | 어깨보다 낮은 위치의 공을 소유하기 위한 도전

차단 |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에게 태클을 시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인터셉트 | 상대의 패스, 크로스, 슈팅의 경로를 수비하여 본인의 소유로 만드는 것

블락 | 상대의 패스, 크로스, 슈팅의 경로를 수비하여 공 소유권을 잃게 만드는 것

클리어 | 수비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을 걷어내는 것

볼미스 | 공을 소유 중이거나, 소유하려고 할 때 실수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것



2022 K리그 TSG(기술연구그룹)

기술위원장 | 박태하

영상분석관 | 서현규

김남표	KFA 전임강사 AFC P라이센스 주강사 前 KFA 기술발전위원회 부위원장 ('17-'18)
김용래	KFA 기술발전위원회 위원 前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교수 ('15-'18) 前 안산그리너스 코치 ('20)
김호영	前 강원FC 감독 ('13) 前 FC서울 감독대행 ('20) 前 광주FC 감독 ('21)
변재섭	前 광양제철고 감독 ('12-'14) 前 제주Utd 코치 ('15-'16) 前 울산현대 코치 ('17-'20)
서동원	前 고려대 코치 ('08-'10) 前 고려대 감독 ('10-'20) 前 광 대표팀 감독 ('21)
이경춘	前 KFA 강사 ('09-'21) 前 우석대 감독 ('12-'16) 前 경주대 감독 ('16-'20)
이규준	장안대 감독 前 KFA 기술위원 ('10-'14) 前 장훈고 감독 ('03-'11)

이기형	前 FC서울 코치 ('11-'14) 前 인천Utd 감독 ('17-'18) 前 부산아이파크 감독대행 ('20)
이도영	KFA 강사 前 제주Utd 수석코치 ('10-'14) 前 강원FC 수석코치 ('18)
정경구	전주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교수 대한풋살연맹 기술이사 KFA 강사
주승진	수원삼성 유스 디렉터 前 수원U18 감독 ('16-'18) 前 수원삼성 감독대행 ('20)
차상광	KFA 전임 지도자 U-19 대표팀 GK코치 前 도쿄 올림픽대표팀 코치 ('19-'21)
최승범	KFA 전임강사 KFA TSG 위원 AFC TSG 위원

팬의, 팬에 의한, 팬을 위한

박태하 기술위원장은 올해가 취임 2년 차다.

부임 첫 해에 ‘구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집단’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 기조 아래 K리그는

기술연구그룹(TSG)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서도 발전했다. 두 번째 시즌에는 팬들과의

스킨십에 집중했다. 프로스포츠투에 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시대에

무관중으로 시즌을 소화하며 경기장을 찾는 이들의 소중함을

보다 중요하게 달았다. 엔데믹을 맞는 만큼 팬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는 리그를 지향한다.

K리그만의 ‘축구 공론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술위원장 2년 차가 끝을 향해 간다.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TSG가 개선되거나 발전된 방향이 있을까.

지난해 기술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TSG의 운영 목표를 ‘구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집단’이 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 ‘ACL 상대팀 전력분석 지원’과 ‘유럽리그 경기분석 영상 제작’이었다. 리그 일정을 소화하느라 ACL 상대팀에 대한 전력분석이나 세계 축구 트렌드를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K리그 감독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자면 ‘팬들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것에 보다 신경을 썼다. 선수, 지도자 그리고 기술위원장으로 오랜 시간 지켜본 K리그의 여러가지 변화 중 하나는, 팬들이 K리그를 즐기는 방법에 있다. 이제 K리그에는 스타 선수

에 대한 팬심이나 경기장 응원 뿐만 아니라 ‘K리그 경기 분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팬들이 많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K리그 팬들이 소위 ‘축구 전문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축구 전문가집단인 TSG의 분석은 내부적으로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더더욱 팬들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K리그 분석토론의 장에 동참해 화두를 던지고, 전문가의 시각을 전달하기 위하여 올해 추진한 것이 ‘월간 TSG’ 발간이다. 매년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지만, 연 1회에 불과해 K리그 분석에 대한 팬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시즌 도중 발생하는 흥미로운 분석 주제에 대해 시의성을 보완했다.

올해 처음으로 테크니컬 리포트 ‘영문판’을 발간하는 취지 또한 대외적 접점을 강화하는 데 있다.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K리그에는 외국인 팬들이 있고, 더 나아가 K리그 팬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발견한 K리그 리포트에 관심을 가질 축구팬들이 전세계에 있다. K리그 TSG는 기술연구그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접점을 강화해 팬들이 K리그를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도 소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TSG를 거쳐 현장으로 복귀하는 감독들이 몇 있다. TSG는 현장을 떠났지만 유능한 지도자들이 현장과 멀어지지 않도록 연결의 역할도 하고 구성원들의 그런 열정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상부상조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한데, 수장으로서 이런 구조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K리그 TSG가 국내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이 조직의 방향성이다. 실제로 그러한 기대를 반영해 TSG 기술위원 중 일부는 최근까지 K리그 지도자 출신이자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했다.

‘상부상조’라는 표현이 맞다. 우선, 현장에서 나온 지도자들은 최근까지 K리그의 전술적 양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걸 만들어낸 이들이기에 현장의 시각을 TSG에 전달해줄 수 있다. 반대로, TSG는 감독의 휴식기간을 성장과 보완의 시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축구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물러났을 때, 더 객관적이고 보다 넓은 시야로 축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휴식기일수록 다양한 팀의 경기를 많이 봐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물러난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경기장에 가는 것에 부담을 갖는다. ‘TSG기술위원’으로서 경기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K리그에 이로운 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휴식기 지도자들은 TSG에 합류해 K리그 경기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 및 분석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TSG 활동기간의 분석을 토대로 리그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TSG는 매 경기 선수평가를 담당하고, 매 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통해 우수 선수 선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K리그 내 신예 선수나 신홍강팀에 대한 파악이 가장 빠른 조직일 것 같은데, 실제로 TSG 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순위 예측이나 미리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선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다.

회의마다 모든 경기에 대한 총평이 오고 가기에, 팀 변화나 선수 활약도에 대해 매우 업데이트된다. TSG 내에서 별도 순위 예측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평을 통해 팀의 향후 양상을 예상하는 일은 자주 있다. 이를 테면 K리그 1 대구FC의 최원권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뒤 점차 팀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TSG 내에서는 결국 대구의 잔류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신예 선수에 대한 파악은 확실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매 회의에서 우수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데, 활약도가 높아 자주 거론된다면 무명선수더라도 TSG 내에 자연스럽게 인지가 생긴다. 특히 신인급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일 때는 기술위원들의 관심이 더 올라가곤 한다. 작년 광주FC의 엄지성과 올해 강원FC의 양현준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두 선수 모두 이전까지 유명한 선수들은 아니었지만, TSG에서는 시즌 초부터 일찍이 그들의 잠재력을 눈여겨봤다.

올해 양현준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토트넘홋스퍼와의 경기를 통해 전국적 유명세를 얻었지만, 그 전에 이미 TSG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었다. 팀K리그 명단을 구성할 때만 해도 양현준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센세이셔널한 드리블로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낼 때는 나 또한 보람을 느꼈다. 기술위원들이 회의에서 거론하는 새로운 이름들은 내가 경기 출장을 갈 때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곤 한다. 내년에는 TSG가 또 어떤 새싹을 발견하고, 성장세를 지켜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해와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해보겠다. 기술위원장의 사선으로 바라본 2022 K리그 경기력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22 K리그 경기력에 대해서는 ‘작년과 다른 트렌드를 보였다는 점’ 자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감독으로서 팀에 전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과 같은 감독들도 작년과 다른 전술을 유연하게 차용했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이를 테면 지난 시즌 K리그 12팀 중 8팀이나 백3 전술을 활용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제주유나

이티드, 수원삼성, 성남FC 등 다수 팀이 시즌 중 백4 전술로 전환하거나 혼용하기 시작했다. 경기 중 처한 상황과 주어진 전력 안에서 감독들이 다양한 전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K리그의 발전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시즌 끝났던 ‘허위부상으로 인한 경기지연 상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지연 상황이란, ‘부상이 발생할 만큼 심각한 접촉이 아님에도, 경기가 중단될 때까지 그라운드에 누워 경기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미한 접촉에도 선수들은 심판의 경기 중단 또는 선수들이 볼을 아웃 시켜줄 때까지, 심각한 부상이 것처럼 누워있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수들은 이것이 승리를 위한 영리한 행위, 혹은 경미한 접촉에도 선수보호를 위한 당연한 시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팬 관람 만족도 감소’에 있다. 접촉 이후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 상황 중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워있는 선수를 위해 흐름이 자주 끊어진다면 팬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량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유럽리그 경기를 시청할 때는 그러한 장면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인상을 준다. 웬만한 접촉에는 선수도 누워있지 않을 뿐더러, 심판도 경기를 멈춰주지 않는다. 허위부상으로 인한 경기지연 상황은 K리그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 중 하나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극적으로 이뤄내며 K리그에 대한 축구팬들의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점이기때문에, 더욱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투지와 투혼에 매료된 축구팬들이, K리그에서 허위부상 장면을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규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보다는, 공감대 형성과 경기 운영 상의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01

2022 K LEAGUE OVERVIEW



2022 K리그1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실
01	울산	76	22	10	6	24
02	전북	73	21	10	7	20
03	포항	60	16	12	10	11
04	인천	54	13	15	10	4
05	제주	52	14	10	14	2
06	강원	49	14	7	17	-2
07	수원FC	48	13	9	16	-7
08	대구	46	10	16	12	-7
09	서울	46	11	13	14	-4
10	수원	44	11	11	16	-5
11	김천	38	8	14	16	-3
12	성남	30	7	9	22	-33

2022 K리그2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실
01	광주	86	25	11	4	36
02	대전	74	21	11	8	25
03	안양	69	19	13	9	11
04	경남	56	17	9	16	0
05	부천	61	17	10	14	7
06	충남아산	52	13	13	14	-5
07	서울E	48	11	15	14	-1
08	김포	41	10	11	19	-26
09	안산	37	8	13	19	-18
10	부산	36	9	9	22	-18
11	전남	35	6	17	17	-11

THE STORY OF K LEAGUE 1 2022

2022시즌 K리그1은 이변이 많은 한 해였다. 여러 기록들이 새롭게 쓰여지며 각 구단의 희비가 엇갈렸다. 울산은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시즌 말 전북의 우승 DNA가 발현되는가 했으나 올해의 울산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인천은 구단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강원은 6위를 기록하며 올해 또 다시 구단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0위 수원은 구단 첫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K리그2에서는 광주가 역대 최단 기간 안에 우승을 확정지었다. 2위 대전은 이번 시즌에도 빠듯하나 했으나 끝내 승격에 성공하며 7년 간의 염원을 이뤘다.



최고의 출발 울산, 주춤하는 전북

이번 시즌 K리그는 11월에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일정으로 인해 평년보다 일찍 개막했다. 본래 3월 초가 정상적인 개막 시기지만, 올해만큼은 2월 중순부터 K리그의 시작을 알렸다. 2월 19일 전북과 수원FC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모든 일정이 정상 진행됐다. K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개막이기도 하다. 월드컵을 목전에 둔 K리그는 지난 10월 29일에 시즌을 종료했다. 시즌 개막 직후 최고의 출발을 보인 팀은 울산이었다. 첫 6경기서 5승 1무를 기록해 3월이 끝난 시점에 선두로 올라섰다. 1R 김천전 무승부 이후 5연승을 거두며 패조의 출발을 보였다. 당시 울산은 확고한 톱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레오나르도가 2월 말에 합류해 컨디션이 완벽하지 못했다. 바코, 엄원상과 같은 선수들을 톱으로 활용하는 임시방편을 선택해야만 했다. 레오나르도는 5R 서울전부터 출전하며 울산의 본격적인 2022시즌 시작을 알렸다.

한편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울산과 대조되는 시즌 초반을 보냈다. 리그 첫 6경기서 1승 2무 3패를 기록해 11위 자리에 위치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리그 3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은 지난 시즌 8년 만에 리그 3연패를 기록했으나, 불과 8달 만에 다시 한번 같은 상황을 재연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다. 시즌 초 전북은 공격과 수비 전환 상황에서 약점을 보였다. 공격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했으며 역습에 취약했다. 전북은 3월 한 달간 무승을 기록하며 최악의 출발을 보였다. 시즌 초 인천의 돌풍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인천은 첫 6경기서 4승 1무 1패를 거둬 리그 2위 자리에 올랐다. 인천은 승리한 4경기에서 모두 1대 0 스코어를 기록해 실리와 승점을 모두 잡았다. 이때 핵심은 무고사였다. 무고사는 이 시기에 인천이 넣은 5골 중 3골을 담당하며 시즌 초 돌풍의 주역이 됐다.



울산의 시즌 초 바코 톱 활용 장면. 비교적 낮은 위치를 점하고 원어들이 깊게 위치했다.



울산 주요 지표 (1~6R)

득점

9골(1위)

슈팅

78회(1위)

공격진영 패스

488회(1위)

전북 주요 지표 (1~6R)

득점

3골(11위)

슈팅

13회(12위)

공격진영 패스

92회(11위)

5월

AFC 챔피언스리그 휴식기 이후 찾아온 강행군

4월은 ACL 조별예선 일정으로 많은 경기가 치러지지 않은 달이었다. K리그 모든 팀이 3경기씩을 소화한 후 휴식을 맞거나 ACL 일정을 치르러 떠났다. K리그는 4월 중순에 잠시 문을 닫았다. 이후 맞이한 5월에는 강행군이 찾아왔다. 모든 팀이 한 달에 리그 6경기를 치르며 빡빡한 일정을 맞이했다. FA컵 일정이 있는 팀은 7경기까지 소화하기도 했다. K리그 팀들이 시즌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달이었다. 스쿼드 층이 두터운 울산과 전북이 이 시기에 많은 승점을 확보했다. 로테이션을 적절히 활용해 유연한 선수 기용을 보인 것이 관건이었다. 센터백 뎀스에 문제를 겪은 울산은 원두재를 중앙 수비로 기용해 위기를 모면했다. 2위 제주와 승점 차이를 10점이나 벌려 1위 자리를 수성했다. 한편 전북은 4월을 기점으로 성적을 내기 시작하며 순위를 회복했다. 이 기간에 백3와

4-2-3-1, 4-3-3 등 여러 전술을 활용해 부진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갔다. 고배를 마신 팀은 수원FC였다. 수원FC는 5월 한 달간 2무 4패를 기록하며 리그 11위 자리까지 추락했다. 많은 경기를 치를 때 승점을 따야 했으나 되려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다. 뒷심이 부족한 게 최대 문제였다. 수원FC는 5월에 실점한 13골 중 11골이 후반전에 허용한 것이었다. 전반전에는 좋았던 수비 조직이 후반전 들어 헐거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같은 연고지의 수원은 5월 이병근 감독 체제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감독 선임은 4월 18일에 이뤄졌으나 5월 울산과의 10R 일전이 첫 리그 경기였다. 수원은 5월 울산전 1대 0 승리를 시작으로 3승 2무 1패를 거둬 리그 9위 자리까지 오르는 데 성공했다. 수원은 지난 4월 11위 자리에서 ACL 휴식기를 맞았다.

수원FC 주요 지표 (10~15R)

실점

13골(1위)

패스

1,603회(10위)

크로스

20회(10위)

태클

37회(12위)



6~7월

K리그 팀들에 주어진 과제, ‘휴식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6~7월 K리그에는 중간 휴식기가 있었다. 6월 첫 주부터 3주간의 A매치 휴식기가 있었으며, 7월에는 동아시아컵이 열려 리그 일정에 2주간의 공백이 생겼다. 하지만, 그만큼 휴식기 외 주간에는 주중 라운드를 치러야 했고, K리그 팀들에 6~7월은 ‘휴식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다. 가장 큰 효과를 본 팀은 수원FC였다. 수원FC는 휴식기 직후에 치른 6월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수비 집중력이 크게 좋아져 3경기 1실점만을 허용했다. 김도균 감독의 전술 기용 역시 유연했다. 백3와 백4 대형을 자유자재로 활용했으며, 김천과의 16R에서는 공격수 김현을 중앙 수비수로 기용하기도 했다. 포항 역시 6~7월에 착실히 승점을 쌓아갔다.

시즌 내내 중상위권을 유지해, 휴식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7월에는 시즌 중 유일한 3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단연 19R 울산전 2대 0 승리였다. 당시 포항은 김승대를 원어로 내세워 허용준, 고영준과 함께 울산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했다. 이 시기부터 포항의 톱 자원은 허용준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제주는 7월 포항과의 22R 경기에서 시즌 첫 백4 전술을 꺼내 들었다. 당시 제주의 백4 기용은 준비된 변화라기보단 차선책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주전 수비 정운과 정우재의 부상으로 수비 라인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제주는 2주 뒤에 펼쳐진 전북전에서도 백4를 꺼내 들며 주요 포메이션을 3-4-3에서 4-3-3으로 전환했다.

포항 주요 지표 (16~22R)

득점

13골(3위)

태클

53회(2위)

인터셉트

218회(3위)

차단

125회(1위)

8월

K리그에 찾아온 '공격수의 달'

8월은 공격수들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진 시기였다. 서울은 7월 일류첸코를 영입해 최대 고민거리인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다. 일류첸코는 7~8월 간 22R 대구전(2대 1 승) 결승골, 26R 울산전(1대 1 무) 선제골, 24R 성남전(2대 0 승) 2득점을 책임지며 서울에 많은 승점을 벌여 주었다. 서울은 7~8월 두 달간 4승 2무 4패를 거둬 8위 자리에 안착했다. 한편 인천은 무고사의 이탈 이후 에르난데스를 영입해 8월 무패행진을 기록했다. 5경기 3승 2무의 성적이다. 에르난데스는 이 기간에 4골 3도움을 기록해 인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에르난데스의 활약이 더욱 각별했던 이유는 역습, 빌드업, 기회 창출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펼친 덕분이다. 빌드업 시에는 중원까지 내려와 팀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르난데스는 서울전(08.27)을 기준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키 패스를 전개한 선수였다. 90분당 2.2개의 수칙다. 수원은 오현규와 전진우를 통해 최대 고민거리였던 '득점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수원은 7월까지 리그 최소 득점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던 팀이었다. 23경기 15골의 처참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후 오현규와 전진우의 폼이 올라오면

서 8월 최대 득점 팀으로 급부상했다. 수원은 8월 한 달간 12골을 몰아넣었으며, 이중 오현규와 전진우가 7골을 담당했다. 이 기간에 3승 2패를 거둔 수원은 강등권을 벗어나 리그 9위 자리에 안착했다. 한편 성남은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2020시즌부터 팀을 이끈 김남일 감독이 사임하고 정경호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잡았다. 시즌 내내 강등권에서 허덕던 성남이 선택한 충격 요법이었다. 정경호 감독대행 체제 전환 직후 성남은 베테랑 수비수 광광선을 기용하며 리그 2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비슷한 기간 대구 역시 '감독 교체'를 겪었다. 작년 겨울에 선임된 가마 감독이 236일 만에 사임하며 최원권 수석코치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시즌 가마 감독은 보다 공격적인 방향으로 대구를 운영하려 했다. 빌드업 시 센터백들의 영향력을 늘려 경기장 전 지역에서 볼을 소유하려 했으며, 수비 시에는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상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5승 12무 10패라는 성적을 거둬 결국 시즌 중 팀을 떠나야만 했다. 가마 감독의 마지막 경기는 K리그 28R 울산과의 일전(08.13)이었다.



에르난데스는 수비 시 5-4-1의 톱 자리에 위치했다. 이후 역습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빠져 공간을 확보하고 볼을 받아냈다.



인천 주요 지표 (23~28R)

득점 **11**골(2위)

슈팅 **76**회(4위)

패스 **2,005**회(9위)

클리어링 **223**회(1위)

차단 **116**회(1위)

강원 주요 지표 (29~33R)

득점 **7**골(4위)

태클 **41**회(3위)

클리어링 **224**회(1위)

블락 **115**회(2위)

9월

파이널A 진출 경쟁의 승자 강원

9월은 K리그의 정규 라운드 마무리된 달이다. K리그1은 9월 첫 2주간 5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소화한 후 다시 A매치 휴식기에 돌입했다. 9월의 주인공은 강원이었다. 강원은 서울, 수원FC와의 6위 경쟁에서 승리해 파이널A 자리에 자리하는 데 성공했다. 8월이 끝난 무렵, K리그1 순위표의 6~8위 자리에 위치한 강원, 수원FC, 서울은 모두 같은 승점 36점을 획득한 상태였다. 시즌 중반까지도 강원의 파이널A 행을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5~6월에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리그 11위 자리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여름을 기점으로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순위가 반등했다. 수비 조직이 안정화되고 김대원과 양현준의 폼이 올라온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강원은 빠른 측면 전환과 역습을 활용해 8~9월 두 달간의 10경기에서

16골을 넣었다. 서울은 9월 1승 2무 2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둬 파이널A 진출에 실패했다. 이 기간에 경쟁팀 강원은 이겼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순위 경쟁에 뒤처지고 말았다. 이 기간에 서울은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은 만들어냈으나 이곳으로 투입하는 패스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선두권 울산과 전북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1위 울산이 9월 한 달간 2승 1무 2패를 거두며 2위 전북과의 승점 차가 9점에서 5점으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전북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또다시 울산의 악몽이 떠오르는 듯했다. 이번 시즌 울산이 리그에서 2패를 기록한 달은 9월이 유일하다. (29R vs성남 2대 0 패, 31R vs포항 1대 2 패)



강원은 여름을 기점으로 수비 조직이 크게 올라왔다. 타이트한 5-4-1 아래 선수들의 수비 의식이 크게 좋아졌다.





247일간의 희비가 결정된 달

K리그1은 10월 23일 38라운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47일간의 긴 대장정이 끝을 맺는 날이었다. 울산은 35R 전북전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둬 우승 트로피를 코앞까지 가져왔고, 강원과의 37R 경기에서 비로소 우승을 확정 지었다. 악몽 같은 역전극이 재연될 걱정은 할 필요도 없이, 울산은 마지막 홈경기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다.

인천은 구단 사상 첫 ACL 무대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8월 에르난데스의 시즌 아웃으로 불안한 시선을 받기도 했으나, 그간 확보해온 승점과 끈끈한 조직력을 토대로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경쟁팀인 36R 제주전 승리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김민석-김보섭-홍시후'로 이뤄진 빠른 3톱을 구성해 제주의 뒷공간을 공략했다. 인천은 이날 10월 중 유일한 승리이자 가

장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4위 자리를 굳혔다. 한편 파이널B의 대구는 리그 4연승을 기록하며 누구보다 풍성한 가을을 보냈다. 10월 무패 행진 기록이다. 대구는 최원권 감독대행 체제 아래 극한의 실리 축구를 추구하며 자신들의 색깔을 찾아갔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자면 단 31.6% 만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K리그1 12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

하위권의 수원과 김천은 승강 플레이오프 참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원은 K리그2 3위인 안양과 붙었다. 2차전 120분이 돼서야 오현규의 극장골이 터져 승부의 행방을 가를 수 있었다. 한편 김천은 대전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1, 2차전 합계 1대 6으로 완패하며 상무팀으로서 2년 만에 강등을 다시 겪어야만 했다.

김천 주요 지표 (34~38R)

10월 성적

4무 3패(승강PO 포함)

점유율

67.2%(1위)

PPDA(압박 강도)

5.78(1위)

인터셉트

193회(1위)





K리그의 새로운 왕이 되기까지

‘준산(준우승+울산)’이라는 별명을 완전히 씻어내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부임 첫해에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하며 분루를 삼켰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2022시즌에는 당당히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몇 시즌 동안 반복돼온 전북현대와의 치열한 우승 경쟁에서 연거푸 좌절을 맛봤던 울산현대를 일으켜 세운 이는 홍명보 감독이었다.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

잘해왔던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홍명보 감독은 2022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당시 “우리가 우승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전북이 앞선다는 생각이다. 울산이 아직 터득하지 못한 ‘우승하는 기술’을 전북은 가지고 있다”며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괜한 엄살이었다. ‘준우승 DNA’로 놀림당하던 기운을 완전히 떨쳐냈다. 울산은 완벽함에 가까운 레이스를 펼쳤다. 득점 없이 비긴 김천상무와의 홈 개막전을 제외하면 꾸준하게 선두를 달렸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 첫해에 느꼈던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2022시즌을 소화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우승을 거둔 올해 전술적으로 특별히 변화시킨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는 감독으로 부임한 첫 해여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완성된 전술’, ‘명확한 역할’이 녹아든 팀을 만들고 싶었다. 4-2-3-1 포메이션 속에서 선수들이 각자에 위치, 상황에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롤(role)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키(Key) 포인트는 미드필더 운영 그리고 그에 따른 동료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와 운영이었다.”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존 바코와 이칭용에 창의성을 갖춘 아마노가 가세하여 중원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맛다. 지난 시즌부터 보여온 우리 팀의 강점이 자 경기 운영 주안점은 ‘패스’다. 길고, 짧은, 정확하고, 다양한 루트의 패스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팀의 강점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색깔, 강점을 그대로 가져가기보다는 더욱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전술을 구사하고 싶었다. 올해는 패스 자체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가 정확하게, 의도에 맞게 전달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다.”

이번 시즌은 주로 4-2-3-1과 4-3-3을 바탕으로 움직였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전술인데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둘 중 하나의 전술을 선택했는가.

“이야기한 해당 두 가지 전술과 포메이션을 항상 염두에 뒀다. 선수 구성에 따라, 경기 준비에 따라, 그 틀 안에서의 변화를 줬다. 특히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누가 맡는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선수에게 맞추어 플레이할지는 매 경기 상대에 맞춰 주문했다.”

대형은 백4를 유지하되, 세부 전술 변화에선 미드필더 한 명을 수비로 내리고 풀백을 왕백처럼 전진시키는 백3의 움직임도 두드러졌다. 상대

의 역습에 대한 안정과 동시에, 공격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보면 될까.

“그렇다. 8월 이후부터 상대의 역습으로부터 팀이 유독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약점에는 볼 반대쪽 혹은 볼에서 거리가 있는 선수로부터의 수비역식 그리고 위치가 매우 강조된다. 그런 상황에서 종종 백3 전술을 활용했다. 팀이 수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비 시에는 4-4-2로 전환, 그리고 공격의 1/3점까지 올라가서 강한 압박을 선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022시즌 수비전술에 대해 복기해보면.

“수치로도 경기력으로도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다. 우리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 그라운드 위 선수들이 ‘탈취 후 공격 전환’이라는 컨셉을 공유하고 있다. 세부전략은 큰 틀 안에서 상대와 상황에 맞춰 변화를 줬다. 예민해야 하는 수비 상황, 즉각적인 변화 및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공격 상황 등을 선수들에게 인지시켰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많이 대화했다. 그렇게 선수들이 머리로 이해하니 좋아졌다.”

이제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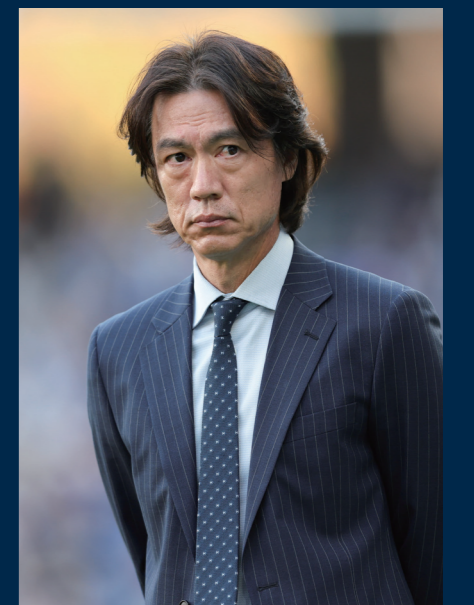
울산은 최다 준우승팀(10회)이 아닌, K리그1 우승 3회 팀으로 2023시즌을 맞는다. 리그 최초 5연패라는 대업을 달성했던 전북 천하를 지우고 울산 천하를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 될 터. 쉽진 않다. 전북이 다시 대권에 도전할 것이고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이 약속돼 신홍 강자로 떠오른 승격팀 대전하나시티즌도 가세한다. 울산의 영원한 라이벌 포항스틸러스의 괴롭힘도 계속된다. 홍명보 감독은 “다음 시즌은 모든 면에서 올해보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준우승 DNA라는 울산 선수단의 심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

“개인 종목과 다르게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는 팀과 팬, 관계자까지 염원하는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행까지 이루는 건 쉽지 않다. 나는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많은 걸 경험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을 한데 모으고, 그 과정에서 선수와 조직을 단계 성장시켰던 경험을 울산 선수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선수들은 물론 울산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잘 따라와 줘 우리가 목표했던 ‘우승’에 다다를 수 있었다.”

우승한 것만큼이나 디펜딩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가 얼마만큼 잘 대비하느냐가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변수를 고려해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내년은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추구했던 축구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이상주의자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둔다. 선수들이 얼마나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매일 1%라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팀이 트로피를 거머쥐기까지

광주FC는 2021시즌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하며 K리그2로 강등됐다. 이 과정에서 주축 선수들이 팀을 빠져나갔다. 신임 감독도 ‘초짜’를 앉혔다. 그 누구도 광주를 주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시즌 전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광주는 압도적인 페이스로 K리그2 정상에 올랐다. 강등 한 시즌 만에 1부 무대로 돌아왔다. K리그2 감독상의 주인공인 이정호 감독을 만나 돌풍의 팀을 세세하게 파헤쳐봤다.

광주FC 이정호 감독



부족한 너와 내가 만나

이정호 감독은 본인과 광주 선수단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했다. “내가 초짜 감독이어서 광주라는 팀을 맡았다. 유명한 감독이었다면 기업 구단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어딘가 부족했기에 광주에 온 것이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너희도 나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고 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지키는 거로는 안 됐다. 용기 있게 도전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감독이 말한 도전의 시작은 이전의 색깔을 버리는 것부터였다.

2021시즌 광주는 4-4-2 기반의 역습 축구를 구사했으나 감독님 부임 이후 3-4-3 기반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트랜지션을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했다. 트랜지션이란 공수전환을 의미한다. 공을 뺏겼을 때 최대한 빨리 볼을 압박해서 다시 가로채 오는 연습을 많이 시켰다. 훈련할 때 공격수, 수비수 등의 일반적인 포지션에 대한 개념은 없다. 공격수니까 공격만, 수비수니까 수비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수비, 공격하는 데 공을 많이 들었다.

시즌 동안 자주 언급했던 ‘좋은 공간’, ‘볼이 아닌 공간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야기한 토탈사커를 뜻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중앙 수비수가 오버랩을 나갔다가 볼을 뺏길 때가 있다. 우리가 연습한 대로 볼을 빠르게 다시 찾아온다고 치자. 이걸 다른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을 되찾으면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그런데 거기서 해당 중앙 수비수까지 그대로 공격에 가담한다면 상대 지역에서 숫자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센터 포워드가 한 명 더 생긴 셈이다. 그렇게 수적 우위를 가지고 상대를 공략하면 더 많은, 다양한 공격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포지션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볼을 가진 공간을 계속 생각하며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자칫 공을 뺏겨오지 못하거나, 뺏겨온 뒤 곧장 다시 소유권을 내줘 역습을 맞는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전략인데.

“그래서 우리에겐 룰이 있다. 누구든 그렇게 공격에 가담하면 수비 숫자가 부족해진다. 그걸 다른 선수들이 채우는 것이 우리의 규칙이다.

누가 채우든 상관없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빈 곳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앞서 이야기한 ‘공간 소유’가 연속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때 수비 훈련을 가장 중요시했던 이유다. 공격은 빈 곳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그건 쉽다. 본능적으로 골을 넣기 위해 빈 곳으로 간다. 그런데 수비 지역에선 빈 곳을 채우는 걸 어려워했다. 그런 수비 조직 훈련을 가장 많이 시켰다. ‘소유’의 개념을 공에 두기보다 공간에 두도록 훈련했다.”

센터백의 공격 가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실제로 박한빈은 K리그2 센터백 기준 드리블 성공 1위, 공격지역 패스성공 1위, 전진 패스 1위 등을 기록했다.

“박한빈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수들을 써보려고 했지만 공격, 미드필드, 수비까지 다 되는 선수는 (박)한빈이뿐이었다. 사실 포메이션, 전술 개념이 없다. 선수들한테는 각자 위치를 지정해주는데 (박)한빈이한테는 ‘과감하게 나가라’ 정도의 주문만 했다. 그런 주문을, 역할을 또 잘 수행했다.”

상대 선수 분석? 우리 선수도 파악해라

이정호 감독이 광주에 뿌리내린 디테일은 단순히 공간의 새로운 개념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선수, 즉 동료 특성에 맞춘 세심한 전략까지도 세웠다. “40경기 동안 늘 컨셉이 달랐다. 탈모도 많이 왔다(웃음). 그 정도로 내가 선수한테 매 경기 다른 숙제를 줬다. 선수들에게 용기 있게 하자는 것도 항상 강조했다. 그 덕에 팀 최다 득점 2위(68득점), 최소 실점 1위(32실점)를 기록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효테일(이정호+디테일)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3-4-3 포메이션에서 양 윙백을 높이 올려 3-2-5로 측면 수적 우위를 점하는 데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이걸 안정적으로 해내기 위해선 윙백들의 능력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넓은 커버리지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수들에게 상황에 관해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 측면 자원인 엄지성이 상대 선수와 1:1로 붙으면 돌파할 확률이 아주 높다. (엄)지성이면 수비 2명이 붙어도 제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3명이 되면 힘들다. 이럴 때는 (엄)지성을 돕기 위해 선수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공간을 소유하며 커버를 가야 한다. 또 (엄)지성이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골대를 등지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의 상황을 다 다르게 움직이도록 주문했다. 단순히 (엄)지성이가 있는 쪽의 선수들뿐 아니라 반대 전환을 고려해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 역시 같이 움직이도록 했다. 누가 받으러 오지도 중요하다. 다시 (엄)지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굳이 센터 포워드가 받으러 내려올 이유가 없다. 돌파가 안 되지만 볼 간수 능력이 좋아 원투로 풀어갈 수 있는 김종우가 막힌 상황이면 센터 포워드가 내려가서 점유로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측면 수비가 오버래핑으로 함께 풀 수도 있다. 그러나 (엄)지성이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크로스를

하거나 컷백 등을 고려해 공격 숫자 우위를 가져 가야 한다.

중앙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는, 하프백의 움직임도 자주 보였다. 센터백, 미드필더 모두 빌드업의 시발점이 돼 패스 옵션이 많아졌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이)순민과 (정)호연이 영리하게 움직임을 가져 갔다. 측면 수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센터백들이 좌우를 커버하기 위해 이동한다. 그러면 중앙 수비 지역에 빈틈이 생기는 걸 막도록 주문 했다. 순민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나선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또 호연이가 순민이와 허리에서 뺄 때의 호흡도 정말 좋았다. 호연이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될 정도다.”

더 발전할 광주를 기대하시라

광주가 K리그2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곧장 1부 로 승격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엄연히 K리그2와 K리그1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1부 무대에서도 이런 공격적이면서도 개성 강한 축구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이정호 감독은 담담했다. 오히려 해볼 만하다는 주의였다. “안 그래도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K리그1에서도 할 수 있겠느냐고들 하신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것이다. 처음 내가 팀을 맡았을 때도 우승 생각은 아무도 못 했다. 오히려 그때보다 양호하다. K리그2여도 프로 무대를 경험했기에 K리그1에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대 맞더라도 한 대 때리자는 주의로 임할 것이다. 무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해왔던 대로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같 생각이다.”

이런 공간 소유를 통한 공격을 하기 위해선 수비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 K리그2에서 뛰어났던 광주 선수들의 압박 타이밍이 K리그1

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공간 소유를 가르치는 것과 달리 압박은 쉽게 이야기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선수들에게 물었다. ‘1:1 상황을 맞았을 때 뺏어오는 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1:1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당연히 후자가 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공격하고 있을 때 위치가 좋으면 뺏겨도 바로 압박해서 가로챌 수 있다. 수비 라인을 내리지만 하면 공격수가 수비 지역까지 쓸데없이 뛰어와야 한다. 와서 수비 상황에 보탬이 되면 좋겠지만 공격수가 채 다 오기도 전에 상황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다시 공격을 전개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체력도 소진한다. 그런 쓸데없는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 좋은 위치에서 잘 압박하는 반복 훈련을 하고 있다. 정답은 없다. 공수전환 훈련을 반복한다면 K리그1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포부가 느껴지는데, 이정호표 광주가 이미 완성이 된 부분에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아직도 담담하다. 그렇지만 발전하는 모습은 고무적이다. 경기력이 2022시즌 막 시작했던 3~4월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선수 이적 문의가 많이 온다. 내가 처음 광주에 왔을 때는 타 구단들이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 빛을 본다는 생각이 든다. 난 판을 깔아준 것이고 선수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년에도 우리 선수들이 나보다 더 빛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 자신도 있다. 물론 광주 여건상 많은 선수 영입은 어렵다. 지킬 선수들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 후에 약 6명 정도 영입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대로 영입이 되면 그냥 맞고만 있지 않고 반격할 수 있는 광주가 될 것이다.”

TEAM OF THE YEAR

2022시즌 최우수선수(MVP) 경쟁은 치열했던 예년과 달랐다. 한 선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울산현대에 우승 트로피를 안긴 이청용의 몫이었다. 12명의 감독 중 6표, 12명의 주장 중 6표, 116개의 미디어 표 중 59표를 받았다. 환산 점수 50.34점을 획득해, 신진호(19.40점, 포항)와 김대원(15.86점, 강원)을 여유 있게 제치고 시즌 최고의 별이 됐다.



17

울산현대는 '라이벌' 전북현대를 제치고 무려 17년 만에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 결과, 울산은 4명으로 베스트11을 가장 많이 배출한 팀이 됐다. 베스트11 공격수에 선정된 조규성과 주민규 역시 나란히 17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34

1988년생으로 올해 만 34세인 이청용은 2015년 이동국(당시 만36세), 2008년 이운재(당시 만35세), 2014년 이동국(당시 만35세) 이후 역대 K리그 사상 네 번째로 나이가 많은 MVP에 이름을 올렸다.

86.55

강원의 신에 양현준이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K리그1 12개 구단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합산 점수 86.55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맹활약에 힘입어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4회 수상, 라운드 베스트11 6회 등을 해냈던 그는 리그 영플레이어상 수상으로 화룡정점을 찍었다.

K LEAGUE 1

BEST 11



조현우 36경기 33실점

조현우는 이번 시즌 리그 36경기에 출전했다. 이번 시즌 15경기 이상 출전 골키퍼 중 선방률 2위, 출전 경기수는 최다다. 지난 시즌에 이어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며 울산의 17년 만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73.6% 선방률

이번 시즌 15경기 이상 출전 골키퍼 중 선방률 2위. 출전 경기수는 최다(36경기)



김진수 31경기 2골 3도움

전북 소속으로 뛰면서 개인 통산 가장 많은 리그 일정을 소화했다. 31경기 출전했다. 킥 횟수만 많았던 것이 아니다. 2골 3도움으로 공수다방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41회 그라운드 경합 성공

전체 윙백 중 그라운드 경합 성공 3위. 15경기 이상 출전으로 국한한다면 가장 높은 성공률.



김영권 36경기

베테랑이어도 처음 뛰는 무대는 낯선 것이 일반적이다. 김영권은 예외였다. K리그 데뷔 시즌에 무려 36경기를 뛰며 울산의 우승에 이바지했다. 흥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패스 축구에 큰 공을 세웠다.

1,260회 전진패스

전체 선수 중 전진 패스 횟수 1위. 2위 오스마르(1,099회)와도 큰 차이가 나는 수치.



박진섭 33경기 2골

이보다 완벽한 포지션 변경이 있을까. 지난 시즌 K리그2 대전 소속으로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 수상자였던 박진섭은 2022시즌에는 전북 유니폼을 입고 수비수로 K리그1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142회 공중볼 경합 성공

K리그 전체 센터백 중 4위.



김태환 30경기 3도움

'치타'라는 별명에 걸맞은 시즌을 보냈다. 30대 중반을 향하는 나이지만 여전한 속도와 활동량으로 울산 측면 수비에 힘을 보탤었다.

138회 공격지역 전진패스

전체 수비수 중 공격지역 전진패스 1위. 이중 109회를 성공 (66.7%)



김대원 37경기 12골 13도움

2022시즌 K리그 최고의 스타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펼쳤다. K리그1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득점,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강원의 파이널A 진입에 기여했다.

291회 크로스

전체 선수 중 크로스 횟수 1위. 키패스 지표에서도 1위 기록. (78회)



세정야 29경기 12골 6도움

이보다 더 완벽한 외국인 선수는 없다. 대구FC의 세정야는 이번 시즌에도 건재했다. 대구가 극적인 반전을 그리는데 세정야의 공이 컸다. 외국인 선수임에도 팀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력을 발휘했다.

97회 슈팅

전체 미드필더 중 가장 높은 슈팅 기록. 유효 슈팅 역시 가장 높은 수치 (35회)



신진호 32경기 4골 10도움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2022시즌 K리그1에 대입하면, '신진호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다. 30대 중반의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경기력을 자랑했다.

785회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전체 선수 중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2위. '페널티 밖→안 패스' 수치 역시 2위 (92회)



이청용 35경기 3골 2도움

블루 드래곤은 여전했다. 리그 MVP로 제2전성기를 맞았다. 측면 공격은 물론 수비, 중앙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제 몫 이상을 해냈다.

497회 공격지역 패스

전체 미드필더 중 2번째로 높은 공격지역 패스 수치. K리그 전체 선수 중에는 4위.



조규성 31경기 17골 5도움

K리그가 낳은 최고의 스타다. 김천 상무와 전북현대 두 소속으로 뛰었음에도 흔들림은 없었다. 점점 발끝은 날카로워졌고 시즌 최종전에서는 득점왕에 등극했다.

46회 유효 슈팅

전체 선수 중 가장 높은 유효 슈팅 기록. 40회 이상의 유효 슈팅 선수는 물리치와 조규성 단 둘.



주민규 37경기 17골 6도움

지난 시즌 득점왕은 반짝 활약이 아니었다. 더 격렬해진 상대 수비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7골을 넣었다. 득점왕을 또 한 번 거머쥐지 못했으나 골게터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 시즌을 보낸 주민규다.

16.99 xG

전체 선수 중 가장 높은 기대 득점값 기록. 2위 레오나르도(12.89)와도 큰 차이의 수치.



TALKING POINTS

02

PPDA(압박 강도)의 증가

팀명	2021	2022	증가율
광주*	10.54	6.95	+34.1%
충남아산	11.09	7.32	+34%
서울	10.78	8.18	+24.1%
전남	9.84	7.62	+22.6%
서울E	9.32	7.34	+21.2%
안양	9.49	7.78	+18%
경남	8.46	7.02	+17%
부천	9.67	8.04	+16.3%
대구	12.24	10.55	+13.8%
부산	9.92	8.56	+13.7%
전북	9.84	8.52	+13.4%
성남	11.86	10.49	+11.5%
제주	9.52	8.45	+11.2%
울산	8.69	7.81	+10.1%
안산	9.55	8.72	+8.7%
수원	11.74	10.74	+8.5%
대전	8.08	7.36	+8.5%
인천	11.36	10.81	+4.8%
수원FC	11.72	11.26	+3.9%
강원	11.05	10.72	+3.0%
포항	8.55	8.78	-2.7%
김천*	8.22	8.52	-3.6%
김포		9.27	

PPDA란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상대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 패스 횟수 당 전체 수비 액션을 나눠 계산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더욱 압박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즌 K리그의 특징 중 하나는 압박 강도가 큰 쪽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K리그1과 K리그2 모두 작년보다 높은 압박 강도 수치가 기록됐다. K리그1은 10.66에서 9.56으로, K리그2는 9.35에서 7.81로 증가했다. 각각 10.3%와 16.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K리그2 팀들의 증가율이 높게 기록됐다. 가장 눈에 띄는 팀은 광주다. 이번 시즌 K리그2로 강등당한 광주는 이정호 감독 아래에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했다. 이 감독은 "상대 움직임에 따른 위치, 압박 시 유지해야 할 각도, 상대 패스가 이뤄지는 경우의 수 등 모든 요소를 선수들에게 입력시키려 한다"라고 언급하며 압박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관리한다는 점을 밝혔다.

2021-2022시즌 K리그 1, 2 압박 강도 증가율.

*표기 팀은 승격/강등팀. 2021년과 2022년의 비교 리그가 다름.

충남아산의 지표 역시 주목해볼 만 하다. 충남아산은 증가율 상위 4팀 중 유일하게 2021~2022 시즌 감독 교체를 겪지 않은 팀이다. 박동혁 감독은 지난 시즌과 같이 간결하고 수비적인 축구를 지향하되, 전방에서의 적극성을 추가로 주문했다. 수비 시엔 뒷선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 시엔 세컨드 볼을 적극적으로 노린다. 충남아산은 압박 강도 이외에도 K리그 1, 2에서 가장 많은 공격지역 수비 행위를 기록했다.

한편 포항은 승격/강등을 겪지 않은 팀 중 유일하게 압박 강도가 감소한 구단이다. 이번 시즌 포항은 작년보다 전반적인 무게 중심이 내려앉은 양상을 보였다. 4-4-2 대형 아래 수비 시작 지점을 낮춰 보다 공간을 지키는 데 치중했다. 대신 수비 진영을 갖춘 이후 압박을 몰아붙이는 구도에 강점을 보였다. 상대 선수와 뒷선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수비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번 시즌 포항은 K리그 1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압박 강도를 기록했지만 '공격진영 태클' 수치는 2번째로 높았다.

광주와 대전이 K리그2를 지배한 방법

이번 시즌 K리그2에는 수비 시 5-4-1 대형을 형성하는 팀이 많았다. 경남과 부산, 전남 정도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3-4-3 기반의 5-4-1 수비 대형을 고수했다. 양 윙어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경기 중 압박 강도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윙어가 올라온 5-2-3 대형을 형성할 때면 미드필드 1/3 지점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했다.

K리그2 1, 2위 팀인 광주와 대전은 이러한 5-4-1 수비를 깨기 위해 유사한 빌드업 형태를 보였다. 두 팀 모두 백3 빌드업 시 미드필더를 중앙으로 내려 후방 숫자를 확보한 것이다. 이 경우 크게 2가지 지점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미드필더가 내려온 최후방 지역과 좌우 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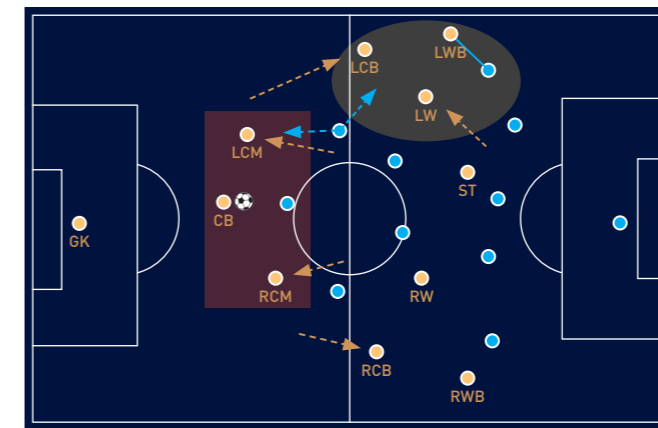
터백이 전진한 측면 지점이다. 최후방에서는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상대 1톱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프리맨을 만들 수 있다. 대전은 주로 주세종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편이며, 광주는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도맡는다.

미드필더가 내려온다면 백3의 좌우 센터백이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 광주와 대전은 이 지점에서 상대 윙어에게 과부하를 준다. 상대 윙어가 측면 센터백을 따라간다면 중앙 1톱 쪽의 수적 열세가 발생한다. 반대로 윙어가 좁혀 1톱의 수비를 지원한다면 광주와 대전이 센터백을 통해 측면 쪽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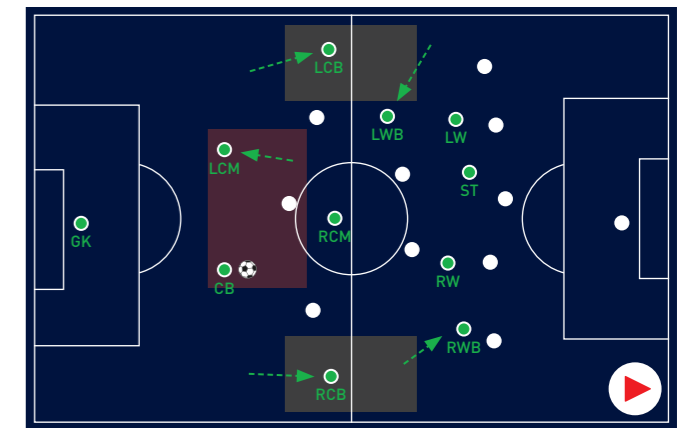
광주와 대전의 차이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광주는 센터백과 윙어, 윙백이 만들어낸 측면 수적 우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이곳에서 프리맨을 만들고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전개해 상대 수비 조직을 무너뜨린다.

대전은 로테이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공격 옵션을 창출한다. 좌우 센터백이 전진할 경우 주로 윙백이 안쪽으로 좁혀와 하프 스페이스나 중앙 지역을 점유한다. 이 경우 윙백이 직접 미드필더 위치에서 볼을 받아내거나 윙어가 연쇄적으로 움직여 연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즌 대전은 서영재, 이현식, 김인균과 같은 선수들을 윙백으로 기용해 이들의 다재다능함을 적극 활용했다.



광주의 빌드업 패턴



대전의 빌드업 패턴

TALKING POINTS
03

점유율의 양극화

최근 K리그는 각 팀 간의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18년 이래 K리그1의 점유율 표준편차가 쪽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단 1.52의 표준편차를 보였으나, 이번 2022시즌에는 3.50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4년 사이에 팀 간의 점유율 격차가 무려 2.5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점유율은 양 팀이 100%의 수치를 양분하는 지표다. 어느 한 팀이 높아진다면 다른 한 팀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최근 K리그에는 강원, 울산, 서울 등 강한 점유 색채를 띠는 팀들이 많

았다. 이젠 '빠르고 강한 축구'라는 K리그의 일 반적인 이미지가 열어지고 있다. 이들 이외에 도 2021년의 포항(56.2%), 2022년의 김천 (55.6%), 2020년의 상주(54.3%) 등 기술적 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이 많았다.






이번 K리그는 2015년 이래 역대 최고/최저 점 유율 팀이 모두 나온 한 해였다. 최고 점유율 팀 은 서울이었다. '익수볼'이 한 시즌 간 첫 정상 가동된 2022시즌 서울은 무려 61.9%의 점유 율을 기록했다. 시즌 중 최고 점유율 경기는 5 월 수원FC와의 11R 경기였다. 당시 서울은 무

려 79.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3대 1 승리를 따냈다.

한편 최저 점유율 팀은 이번 시즌의 대구였다. 평균 점유율 수치가 단 40.4%였다. 대구는 가마 감독을 선임해 기존의 '백3 역습 축구'에 서 탈피하려 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 했다. 이후 최원권 감독대행이 기존의 실리 축 구를 추구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성 공했다. 대구의 가마 감독 시절 평균 점유율은 43%였으나, 최 감독대행 때에는 단 34.1%에 지나치지 않았다.

년도	팀명	점유율
2022	 서울	61.9%
2021	 울산	60.7%
2022	 울산	60.5%
2019	 강원	58.0%
2020	 강원	57.7%

2015년 이래 K리그1 최고 점유율 순위

년도	팀명	점유율
2022	 대구	40.4%
2022	 강원	42.6%
2021	 대구	42.5%
2020	 광주	43.5%
2022	 수원FC	43.8%

2015년 이래 K리그1 최저 점유율 순위

TALKING POINTS
04

타깃형 스트라이커 트렌드



타깃형 스트라이커 마틴 아담을 활용하는 울산의 공격 장면. 마틴 아담이 없을 때의 빌드업과 대조된다.

이번 시즌 K리그1에는 독보적인 골잡이의 존재는 없었지만, 활약한 공격수 중에는 타깃형 스트라이커 유형이 유독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타깃형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보통 높은 제공권을 바탕으로 공중볼 경합에 능한 선수를 칭할 때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반드시 공중볼 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이든 지상이든 전방에 앞세워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이번 시즌 울산의 마틴 아담, 인천의 무고사, 제주의 주민규, 서울의 일류첸코 등이 그렇다.

이러한 특징은 K리그1의 전술적 트렌드와 상응하는 부분이다. 이번 시즌 K리그1에는 작년보다 백4를 활용하는 팀들이 많았다. 기존에 백3을 쓰던 제주와 수원FC, 서울, 수원, 성남이 올해 백4를 혼용했다. 울산과 전북, 포항, 김천은

이번 시즌에도 백4를 고수했다.

구조적으로 백4는 백3보다 중원 지역의 숫자가 많은 대형이다. 수비 라인의 숫자가 적어 이를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까닭이다. 올해 백4가 많은 K리그1은 중원 싸움이 유독 치열했다. 수비 시 4-4-2나 4-5-1을 통해 중원 라인을 두텁게 하는 팀들이 많았다. 작년에 비해 압박 강도 수치도 증가했다.

이러한 전술적 트렌드는 곧 공격팀이 중원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귀결됐다. 1선 선수들이 전방에서 많은 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시즌 K리그1은 '공격지역로의 패스' 수치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은 144.9개의 패스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127.6개에 그쳤다.

그래서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 됐다. 중원 연계가 어려워지니 전방에서의 신체조건 활용이 중요해졌다. 뒷선에서 한 번에 볼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직접 내려와 연계 과정에 관여할 수도 있다. 핵심은 피지컬을 통해 상대 수비로부터 볼을 지키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에 백4 팀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견제할 만한 센터백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센터백 수가 줄었다는 것은 곧 수비 진영에 '신체조건을 갖춘 수비수'가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피지컬에서 우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졌다.

SCOUT OF K LEAGUE



키워 쓰는 명가, 제도 변화에도 차근차근 포항스틸러스

스카우트팀으로서 2022 시즌 포항을 간단히 돌아본다면?

정해진 바이아웃 금액과 트레이드 이적을 통해 신규로 영입된 국내선수들의 경우, 공수 양면에 걸쳐 제 몫을 다해줬다. 신인선수들도 주전급으로 활약한 선수는 없었지만 미래 가능성을 보이며 내년시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하지만 외국인선수의 경우 신규로 영입된 2명 중 스트라이커 자원의 모세스는 기대 이하의 결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윙포워드 및 윙백 자원으로 재영입된 완델손의 경우 시즌 초에는 만족할 만한 기량이 나오지 않았으나, 시즌중반을 넘어서면서 확실히 팀 전력에 보탬이 됐다. 그리고 기존 외국인 선수인 그랜트는 팀 수비의 중심으로 만족할 만한 기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신규 선수 영입 계획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구단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통상적으로 아래 단계를 통해 국내외 선수들을 선별하고 있다. '다음 시즌 포지션별 IN & OUT 검토 → 포지션별 OUT 대상 선수들의 이적/임대 가능여부 파악 → 포지션별 IN 대상 국내/해외선수 리스트업 → 대상 후보자별 기량 및 계약 조건 파악(예산에 포함되는지 사전 점검) → 세

부 기량 파악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스카우트) → 현장검증 결과 공유(스카우트, 코칭스태프 및 사무국) →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 및 계약추진을 통해 선수를 영입한다. 외국인선수로 한정해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시즌 선수 활용 계획을 먼저 수립 한 이후, 구단자체 및 외부소개 등을 통해 대상자들을 선별한다. 이후 연중 통상 2~3개월간 스카우트를 현지에 파견하여 주요 대상자들의 경기를 최소 3경기 이상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스카우트가 추천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코칭스태프 및 사무국과 교감하여, 압축된 최종순번을 정한 다음, 가능하면 바로 현지에서 선수 에이전트와 협상을 통해 선수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한 기간에는 영상을 통해 선수를 선별했지만 그 이전과 엔데믹을 맞는 현재에는 외국인선수 선발 시 현장검증을 기본으로 실행하고 있다. 내년 시즌에도 사전계획 및 대상자 리스트업을 통해 현장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은 포항제철고 출신 유스를 잘 활용하는 걸로도 유명한 구단인데?

포항은 구단의 유소년육성 정책의 모토는 자체 육성을 통한 스틸러스 DNA 함양과 효율적인 예산활용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선수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

면 프로에서 필요한 포지션에 구단 자체 유스선수들을 먼저 검토하고, 프로/유스 지도자들 간의 주기적인 소통 및 일부 합동훈련(시즌 마무리훈련 및 퍼포먼스 센터 활용 등)을 통해 주요 선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구단 자체 유스에서도 매년 좋은 선수들만 배출될 수는 없기에 항상 자유선발 대상의 일반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수들의 스카우팅 활동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즌 별로 자체 유스신인과 자유선발 신인의 입단 비율은 상이하다.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확대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외국인쿼터 확대가 선수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점에선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선수레벨도 좀더 다양하게 넓혀서 즉시전력감, 미래육성형 등으로 좀더 차별적인 선발 및 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기본이 되는 선수들의 기량, 예산을 기준으로 기존의 유럽, 남미 외에 아프리카 등 타 지역으로의 확대를 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는 쿼터 변화 없이 실질적인 활용 가능한 3+1 쿼터로 유지 예정이다. 내후년을 기준으로 예산적으로 저렴하고 육성형 어린 외국인선수를 선발해 외국인쿼터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물론 외국인선수 쿼터를 모두 활용하는 팀들은 선수운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외국인선수

가 성공하는 확률도 쉽지만은 않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다.

조직력이 최우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대전하나시티즌

스카우트팀으로서 2022시즌 대전을 간단히 돌아본다면?

2021년 승격이 좌절됐지만 2022년은 반드시 승격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확실한 승격 전력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승강PO가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 시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기존 선수단을 평가하고 부족한 포지션을 선정하는데 주력했고 스카우트 시장을 통해 포지션별 선수들을 선별해 개개인의 수행능력과 영입조건 등을 검토하며 선수 영입을 진행했다. 뜻하지 않은 선수의 이적, 승강PO로 인해 촉박했던 일정 등으로 선수단 구성에 대한 준비가 늦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무엇보다 기존 선수단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님을 포함한 관계자들간의 회의가 잦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며 선수단 구성을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의 선수들이 주축이 돼 승격 전력을 구성했으나 일부 포지션은 보완되지 못하거나 경쟁구도를 만들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경험 있는 검증된 선수들을 보강하며 팀 플레이가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은 B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군 팀 업무와 어떻게 분배하고 조절하는가? 또 B팀 운영으로 얻는 장단점은?

B팀을 운영하지 않는 구단에 비해 업무가 방대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스-성인간의 연결고리, 비주전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향상, 선수 수급 다변화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B팀 운영을 결정했다. B팀 운영으로 B팀 코칭스태프,매니저 등 별도의 인원을 구성했고 훈련장소 등도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2개의 팀을 운영하기에 지원 업무가 방대해진 것은 사실이나 스카우트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고 영입한 선수들이 1군-B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승격을 이뤄내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유입돼 조직력이 저하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텐데.

모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팬들의 성원으로 승격을 이뤄냈다. K리그1은 대한민국 최상위 리그이다. 승강제 도입 후에도 강등 경험이 없는 기반이 튼튼한 구단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1부급 선수들로 리빌딩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조직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고 판단한다. 이에 대전은 2022시즌을 준비하면서 미리 1부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선수들을 영입했고 선수단을 구성했다. 현재는 많은 변화를 주는 것보다 기존 선수단을 평가하고 전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과 시장가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야 이적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선수 제도가 바뀌지만 그와 별개로 1부에는 강등경험이 없는 기반이 튼튼한 구단들이 많다. 외국인선수 쿼터를 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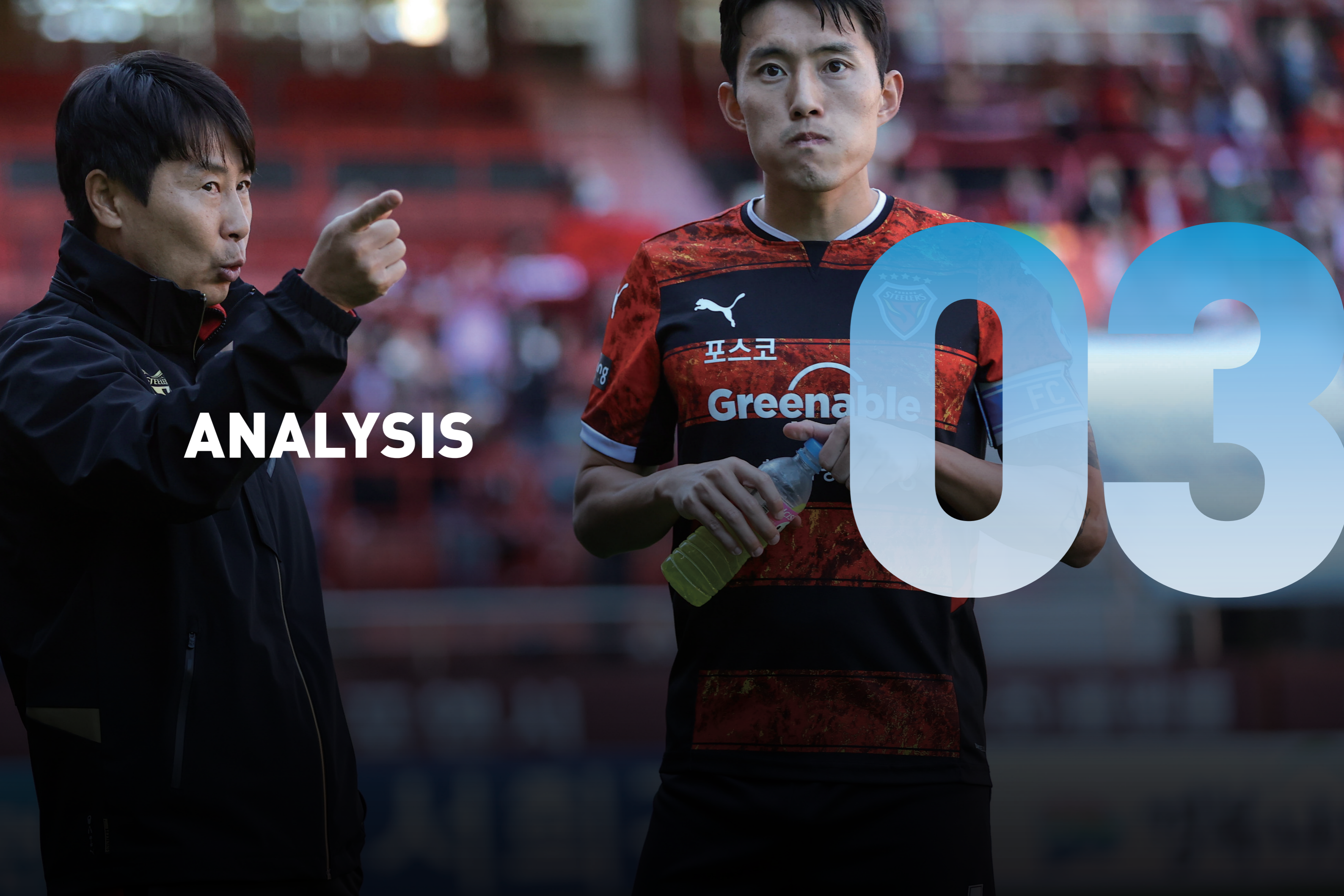
사용하지 않고 조직력을 갖춘 구단들도 존재한다.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외국인선수 쿼터를 전부 채우고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국내의 선수를 구분 짓지 않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포지션에 맞는 선수를 찾고 시장가치가 적절하다면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선수 제도가 바뀌는 것을 대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외국인 쿼터 확대는 구단의 정책이나 운영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단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글로벌 구단을 지향하는 우리 구단로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지만 스카우트 시장을 좀 더 넓은 영역(지역, 포지션 등)으로 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스카우트에 대한 투자나 시스템 강화에 대한 구상도 있다. 상대적으로 선수에 대한 투자만큼 코칭, 지원스태프에 대한 투자나 양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예로 스카우트 양성에 대한 전문적인 육성기관이나 커리큘럼은 전문하다. 최우선으로 인식전환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ALYSIS

03

GOAL SCORING 특점

K리그1의 2022년은 여전히 '저득점의 해'다. 전체 228경기에서 590골만이 기록되며 경기당 평균 2.6골을 넘지 못했다. 최근 7개년을 비교하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적은 골을 기록한 시즌이다. K리그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2019년부터 줄곧 저조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수치 또한 그 나름의 분석할 가치는 있다. 그 이면에는 의미 있는 원인과 특징들이 숨겨져 있다.



K리그에 찾아온 '득점 평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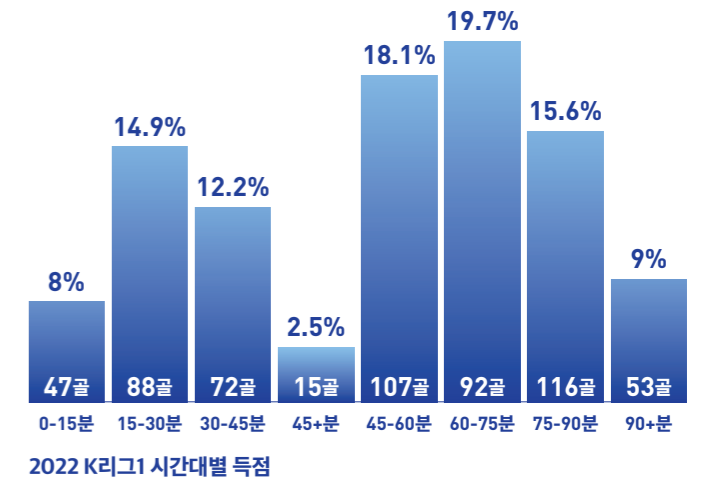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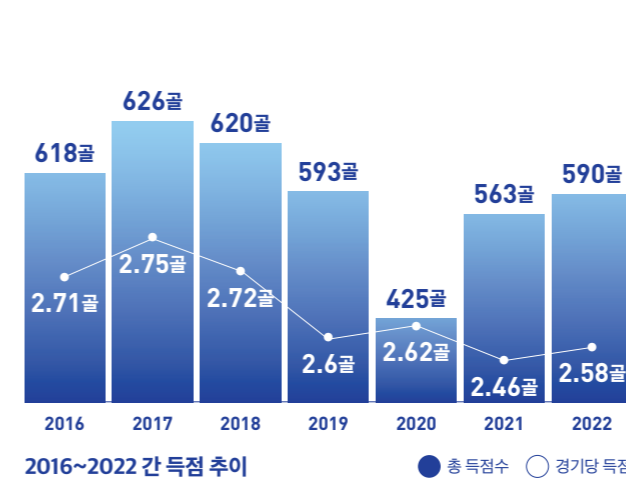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모든 팀의 전반적인 득점 수가 평준화되었다는 것이다. K리그의 득점 표준 편차는 지난 2021년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다. 우선, 매년 득점의 선두권을 차지하는 울산과 전북의 골 수가 줄었다. 지난 시즌 울산과 전북은 각각 64골, 71골씩을 기록했으나, 이번 시즌은 57골, 56골에 지나지 않는다. 57골을 기록한 울산이 가장 많은 골을 넣으며 예년에 비해 리그 최다 득점 팀의 골 수가 줄어 든 모습을 보였다. 울산과 전북의 승리 수 자체는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하지만, 그 중 다득점(3골 이상)을 기록한 승리가 확연히 줄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득점력이 줄면서, 한 경기에 3, 4골씩 몰아넣는 경기가 적어진 것이다. 울산은 작년에 비해 전반전 득점 수가 줄었고 전북은 후반전이 약해졌다. 특히 전북의 후반전 득점 수 변화가 매우 눈에 띈다. 지난 시즌 전북은 후반전에만 53골을 몰아넣었으나 이번 시즌에는 32골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공격진 댄스가 얹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스타보, 일류첸코, 문선민, 쿠니모토 등이 팀을 떠나거나 부진하면서 전북의 후반전 파괴력이 작년과 같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전체 득점 수가 늘어난 까닭은 울산과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공

격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덕분이다. 인천과 강원, 대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인천은 무고사와 에르난데스를 통해 득점력을 뽐냈으며, 강원은 김대원과 양현준이라는 빛나는 공격 자원을 내세웠다. 대구는 새 얼굴 고재현과 제카가 활약하며 세징야와 합을 맞췄다. 여기에 수원 FC와 포항, 승격팀 김천까지 수준 이상의 득점력을 보이며 K리그 득점 수 증가에 기여했다. 2021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K리그1 팀들의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이 크게 개선된 것이었다. 2015년 이래로 최저 득점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경기 시작 15분 이내 득점 비중이 감소했다. 대신 집중력이 떨어지는 추가 시간에서의 득점 비중이 높았고, 막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기가 많았다. 2022시즌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다. 리그 전체 득점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며 추가 시간의 득점 비중이 높다. 경기 시작 15분 이내 득점 비중 역시 작년과 유사하다. 2018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비교하자면, 2021시즌과 2022시즌이 서로 가장 비슷한 득점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두 시즌의 득점 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전/후반 중반 시점의 득점 비중이 늘었다. 15~30분, 60~75분의 득점 비중이 작년보다 4%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앞

서 얘기한 바와 같이 K리그1 팀들의 공격 조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후반 중반 시점은 경기 90분 내에서 양 팀의 공-수 조직력이 가장 올라와 있을 때다.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적응을 마친 후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점의 득점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리그 공격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골 결정력이 빛났던 2022시즌

2022시즌은 K리그1 팀들의 골 결정력이 빛났던 해였다. 실 득점 수는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기대득점 수치는 감소한 현상을 보였다. 즉, 작년에 비해 '더 적은 기회 속에서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었다는 뜻이다. 2021시즌에는 전체 607.8골의 기대득점 중 542골을 기록했으나, 이번 시즌은 단 580골의 기대득점 중에서도 577골을 기록했다. 가장 좋은 골 결정력을 보인 팀은 수원FC다. 이번 시즌 수원FC 다득점의 원천은 '골 결정력'에서 나왔다. 41.4골의 기대득점 값에도 불구하고 무려 54골을 뽑아냈다. 기댓값에 비해 12골 넘게 더 득점한 것이다. 수원FC는 리그에서 3번째로 적은 기회를 만들어냈으나, 높은 결정력을 바탕으로 전북과 함께 2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했다.



	실득점	기대 득점(xG)
울산	57	58.8 (+1.8)
전북	55	56.5 (+1.5)
제주	52	56.0 (+4.0)
대구	50	53.0 (+3.0)
포항	51	51.7 (+0.7)
서울	43	50.8 (+7.8)
수원	43	44.8 (+1.8)
김천	42	43.6 (+1.6)
인천	45	42.5 (-2.5)
수원FC	54	41.4 (-12.6)
강원	49	41.1 (-7.9)
성남	36	40.1 (+4.1)

2022 K리그 득점 순위와 기대득점(xG) 수치

핵심은 이승우다. 이번 시즌 이승우는 7.47골의 기대득점 값에서 무려 14골을 뽑아냈다. 리그 전체에서 기대득점 대비 실 득점 수가 가장 높은 선수다. 이승우는 과감한 슈팅과 유연한 몸놀림을 통해 골을 뽑아내는 상황이 많았다. 상대 수비가 앞에 있거나, 정상적인 슈팅이 어려운 자세에서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골을 뽑아냈다. 성남과의 7R에서 나온 중거리 골과 포항과의 17R에서 터진 터닝 발리슛 득점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이외에도 정재용과 김현이 기대득점 대비 높은 실 득점 값을 보이며 수원FC를 득점 2위 팀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시즌 파이널A에 진출한 강원 역시 주목해볼 만 하다. 강원은 기대득점 대비 8골에 가까운 득점을 더 뽑아내며 50골 이상 득점하는 데 성공했다. 김대원이 기대득점 대비 가장 많은 실 득점을 기록했으며, 수비 라인의 김진호와 김영빈 역시 높은 결정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시즌 강원의 또 다른 핵심으로 떠오른 양현준은

9.16골의 기대득점 값에서 8골을 기록하며, 결정력 보완에 대해서는 숙제를 안게 됐다. 양현준은 팀 내에서 기대득점 대비 실 득점 수가 가장 낮은 선수다.

한편 기대득점 대비 실 득점 수가 가장 낮은 팀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기대득점 대비 7.8골을 놓치며 이번 시즌 '최소 득점 2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은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기대득점 값을 기록했음에도, 이들보다 더 적은 골을 넣은 팀은 꼴찌 성남이 유일하다.

서울의 이러한 기록이 더욱 아쉬운 이유는 다른 지표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록을 보였기 때문이다. 데이터로 보자면 강한 압박과 점유 게임

을 추구하는 '익수불' 자체는 꽤 잘 가동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패스, 전방 패스, 수비지역 패스, 중앙지역 패스 면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으며, 압박 강도에서도 2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골'로 말한다. 경기의 최종 목표인 골을 뽑아내지 못한 서울은 이번 시즌 9위 자리에 만족해야 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공격수, 조규성과 주민규

이번 시즌 K리그의 득점왕은 조규성이다. 17골의 주민규와 골 수가 같으나 출전 경기 수가 적어 득점왕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지난 시즌 5년 만에



	골	기대 득점 (xG)	슈팅	유효슈팅	슈팅/xG
조규성	17	13.71 (-3.29)	96	46	0.143
주민규	17	16.99 (-0.01)	98	38	0.173
이승우	14	7.46 (-6.53)	64	22	0.117
무고사	14	9.51 (-4.48)	60	28	0.159
바로우	13	6.89 (-6.1)	36	21	0.191
고재현	13	8.96 (-4.03)	46	25	0.195
오현규	13	9.66 (-3.33)	68	28	0.142
엄원상	12	7.74 (-4.26)	49	26	0.158
세정야	12	7.75 (-4.25)	97	35	0.080
김대원	12	8.54 (-3.45)	64	21	0.134

탄생한 '토종 득점왕' 주민규에 이어 올해에도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됐다. 2014년의 산토스(14골) 이후 최저 골 수로 수상한 득점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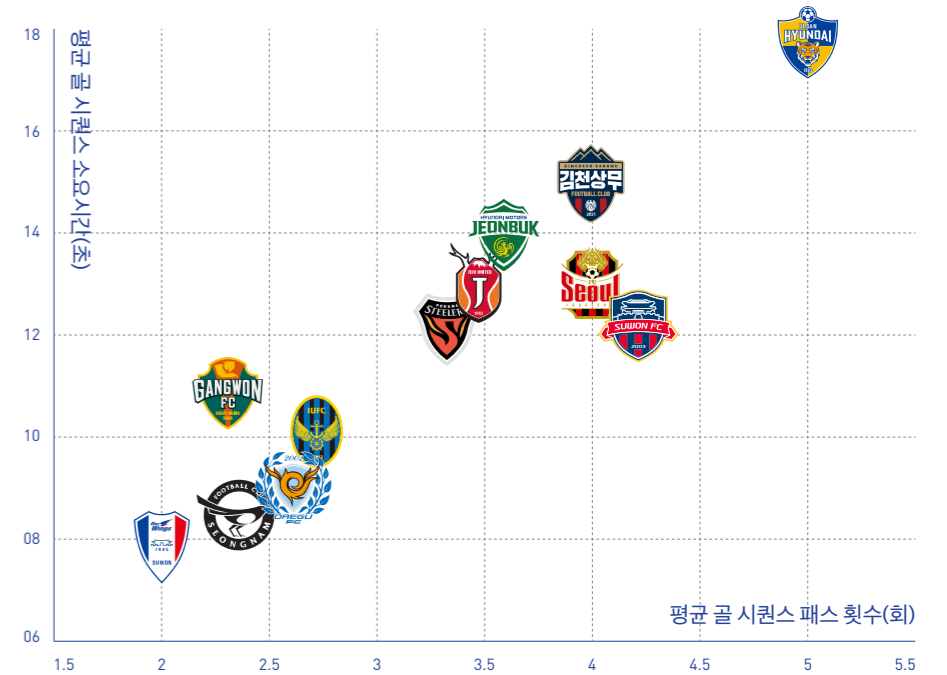
조규성은 완성형 공격수에 가까운 유형이다. 188cm의 큰 신체 조건을 내세운 타깃형 스트라이커이나 슈팅력과 스피드, 예측력까지 겸비했다. 지난 시즌 김천에서는 윙어와 중앙 공격수 자리를 함께 소화했다. 같은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주민규와는 다른 유형의 선수라 할 수 있다.

주민규는 신체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수다. 정지 상태에서 높은 타점과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수비와의 경합 구도에서 우위를 점한다. 골문 앞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 그의 사정 범위 안에서는 대부분의 찬스를 골로 연결할 수 있다. 주민규는 이번 시즌 17골 중 16골을 박스 안에서 득점했으며, 박스 바깥에서 넣은 한 골 역시 매우 근소한 차이였다. (15R vs 전북 득점)

반면 조규성은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스피드와 예측력을 통해 미리 자신의 득점 공간을 마련하는 유형이다. 상대 수비와 직접 부딪히기보단,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높은 타점을 활용한다. 빌드업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 라인에 위치해 계속 뒷공간을 파고드는 시도를 한다. 박스 바깥에서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때린다. 피지컬과 스피드, 순발력을 함께 활용해 타깃형 공격수로서 보다 유연한 플레이를 펼친다.

대구의 고재현 역시 주목해볼 만 하다. 이번 시즌 고재현은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슈팅당 xG' 지표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득점 기회 속에서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평균 0.195xG를 기록했으며, 이는 슈팅 한 번당 득점 확률이 20%에 가까웠다는 것을 뜻한다. 전북 바로우 역시 근소한 차이로 고재현의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이번 시즌 고재현의 위치 선정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고재현은 본래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을 겸하던 선수였으나, 이번 시즌 가마 감독 아래에서 윙



K리그 팀들의 골 시퀀스 그래프

어 자원으로 분류되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대구 역시 세정야와 제카가 연계 과정에 많은 관여를 하면서 고재현이 공격의 방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다. 이번 시즌 고재현은 리그 32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며 팀 내 최다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숨겨진 울산의 우승 비결. '골 시퀀스'

골 시퀀스 지표에서는 울산이 가장 독보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번 시즌 울산은 '평균 패스'와 '평균 시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가장 점진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득점한 팀이었음을 내포한다.

이는 울산의 지난 시즌 골 시퀀스 지표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울산은 지난 시즌에도 올해와 같이 점유 축구를 추구했으나, '평균 패스'와 '평균 시간' 지표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울산은 골 시퀀스 당 평균 3.3개의 패스(7위)를 기록했고, 평균 소요 시간은 11.01초(6위)였다. 즉, 일반적인 플레이 상황에서는 점유 축구의 색채를 잘 보였으나, 정작 점유를 통해 골을 넣은 장면은 많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시즌에는 대개 이동경, 이동준, 오세훈 등을 활용한 간결한 전개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울산은 평소 자신들이 추구하던 플레이를 통해 많은 골을 넣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번 시즌 울산의 득점 장면에는 아마노 준, 바코, 이창용 등이 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 공격의 방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명보 2년 차'에 접어든 2022시즌, 드디어 울산이 자신들의 축구를 통해 결과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편 수원은 가장 간결한 골 시퀀스를 보인 팀이 됐다. 오직 2번의 평균 패스와 7.98초 만의 시퀀스 시간을 통해 골을 만들어냈다. 이는 수원의 득점 중 세트 플레이 비중이 매우 컸던 까닭이다. 이번 시즌 수원은 44개의 득점 중 14개를 세트 플레이로 넣었다. 이중 코너킥으로만 12골을 득점했다. 코너킥으로만 보자면 K리그 내에서 최다 득점 수치다. 이번 시즌 수원은 이 기제의 원발 킥력과 오현규, 고명석, 안병준 등의 헤더를 통해 세트 플레이 득점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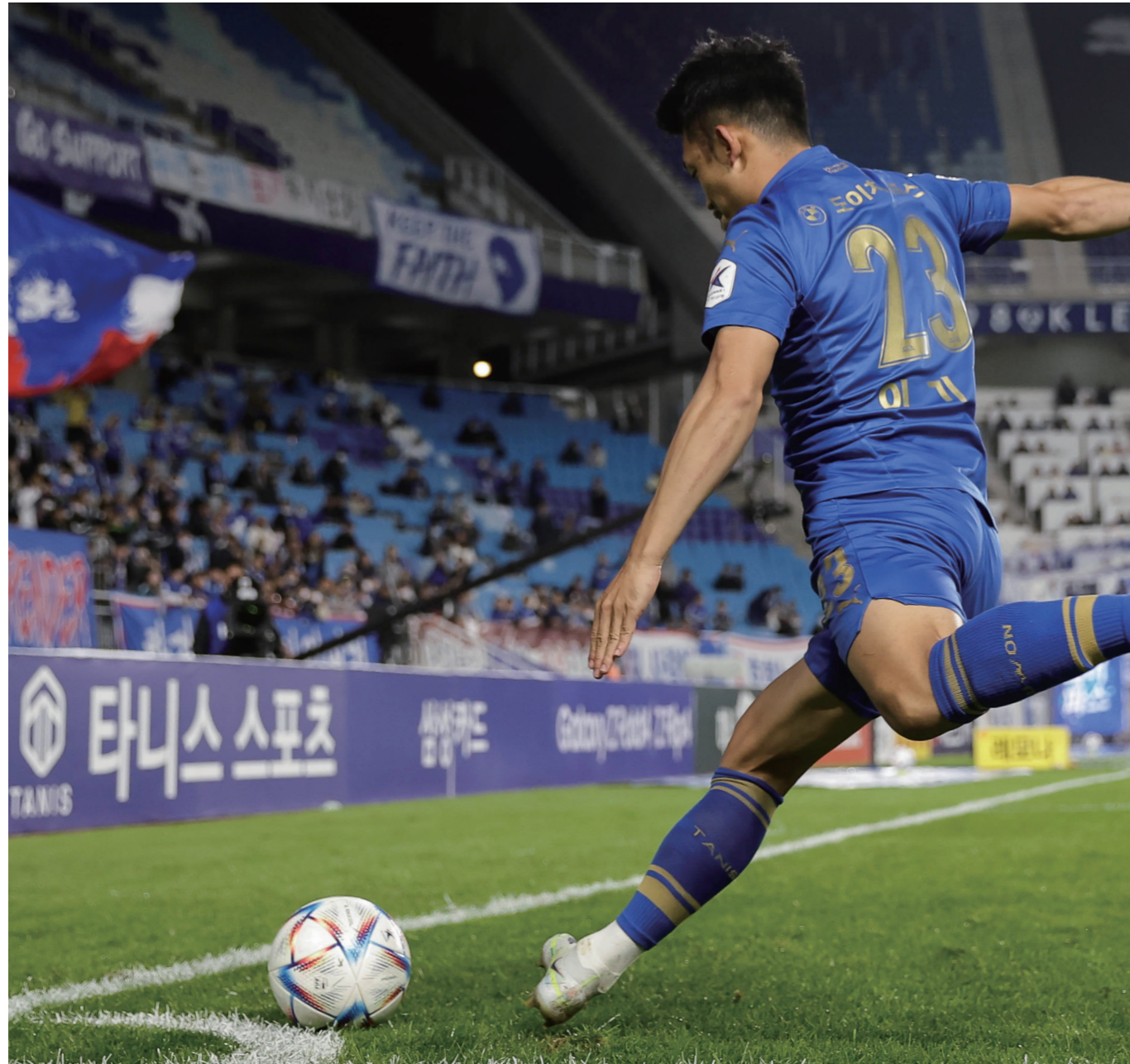
SET PLAYS 세트 플레이

K리그는 세트 플레이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리그다.

신장과 키클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매해 항상 치열한 세트 플레이 경쟁이 펼쳐진다.

이번 시즌에도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운명이 갈린 상황들이 많았다.

울산은 마틴 아담의 세트 플레이 득점을 통해 전복을 무너뜨렸으며, 수원은 코너킥으로만 12골을 뽑아냈다.



이번 시즌 K리그에는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133골이 터졌다. 코너킥에서 84골이, 프리킥에서 49골이 나왔다. 울산과 수원FC, 서울, 대구, 수원 다섯 팀이 대부분의 골을 몰아 넣은 추세다.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울산과 수원FC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모두 강점을 보였다. 두 팀 모두 마틴 아담과 라스, 김현이라는 확실한 타겟맨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팀은 수원이다. 이번 시즌 수원은 코너킥 상황에서만 12골을 뽑아냈다. 리그 내에서 가장 높은 코너킥 득점이다. 수원은 좌우 코너플래그를 가리지 않고 이기제의 왼발 킥을 통해 위협적인 코너킥을 전개했다. 주요 타겟은 오현규와 고명석, 안병준이다. 이 세 선수는 이번 시즌 수원의 코너킥 상황에서 각 3골씩을 넣으며 팀을 위기에서 여럿 구해냈다.

울산	15
수원FC	15
서울	14
대구	14
수원	14
포항	12
전북	10
성남	10
제주	9
강원	9
김천	6
인천	5

K리그1 세트 플레이 득점 순위 (코너킥+프리킥)



수원 삼성

수원 코너킥의 핵, 이기제

세트피스는 찰나의 순간에 공간을 만들고 킥을 보내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공간이 있더라도 킥이 부정확하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번 시즌 수원은 이기제를 통해 이 고민을 해결해왔다. 이기제는 K리그 내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왼발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다. 볼의 궤적을 살린 채 빈 공간으로 정확한 킥을 보낸다. 이기제는 이번 시즌 K리그1 도움왕 자리에 오르며 자신의 기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성남FC

K리그에 등장한 '프리킥 오프사이드 트랩'

대구와 성남과의 30R 경기 전반 6분. 왼쪽에서 세징야가 프리킥을 시도하자 성남이 순간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다. 순간 대구의 모든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에 걸려 프리킥 찬스가 무산되버리고 말았다. K리그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한 프리킥 수비가 나오는 순간이었다. 오프사이드 트랩 직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다시 뛰어 들어오는 성남 선수들의 모습 역시 매우 인상적이다.



울산 현대

10월 8일 전북전, K리그 역사에 남을 그 순간

울산은 79분 마틴 아담의 투입 이후 일관된 코너킥 패턴을 통해 전북의 골문을 노렸다. 마틴 아담은 박스 중심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동료들은 박스 중심부에서 마틴 아담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채비를 한다. 마지막 역전골 장면을 되돌아보자. 박스 중심부에 위치한 바코는 상대를 끌어냈으며, 정승현은 블로킹을 걸어 상대 수비의 움직임에 제약을 걸었다. 이후 중심부로 쇄도해 들어온 마틴 아담이 마크맨 윤영선을 떨구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헤더를 시도하는데 성공했다.



부산 아이파크

페레즈 감독이 보인 '프리킥 두 줄 수비'

한편 부산의 페레즈 감독은 두 줄 수비를 통해 프리킥을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개 프리킥은 한 줄을 통해 상대를 막아서기 마련이다. 오프사이드를 걸며 상대 킥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비를 두 줄로 세운다면 오프사이드를 걸진 못하나 뒷공간을 더욱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비의 뒷 라인이 골문 앞 지역을 지키며 상대 킥과 침투를 막아낸다는 것이 포인트다.

COUNTERATTACK 역습

이번 시즌에도 역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여전히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았다. 올해에는 득점력을 갖춘 윙어들이 많아 역습 상황에서의 골 패턴이 더욱 다채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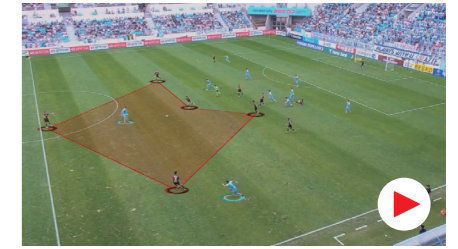


시퀀스 데이터의 '다이렉트 스피드'란 상대 골대 방향으로의 볼 전개 속도를 말한다. 직선 이동 거리를 토대로 계산해 해당 팀의 공격 속도를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이번 시즌 K리그에서는 수원FC, 대구, 강원이 다이렉트 스피드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패스 횟수도 눈에 띈다. 세 팀 모두 K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패스 횟수를 보이며 공격 전개의 속도와 간결함을 모두 잡았다.



수원FC

수원FC는 K리그에서 가장 높은 '다이렉트 스피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무려 1.5배가량이 증가했다. 이번 시즌 이승우가 팀에 합류한 것이 관건이다. 이승우는 라스와 함께 공격을 이끌며 수원FC를 K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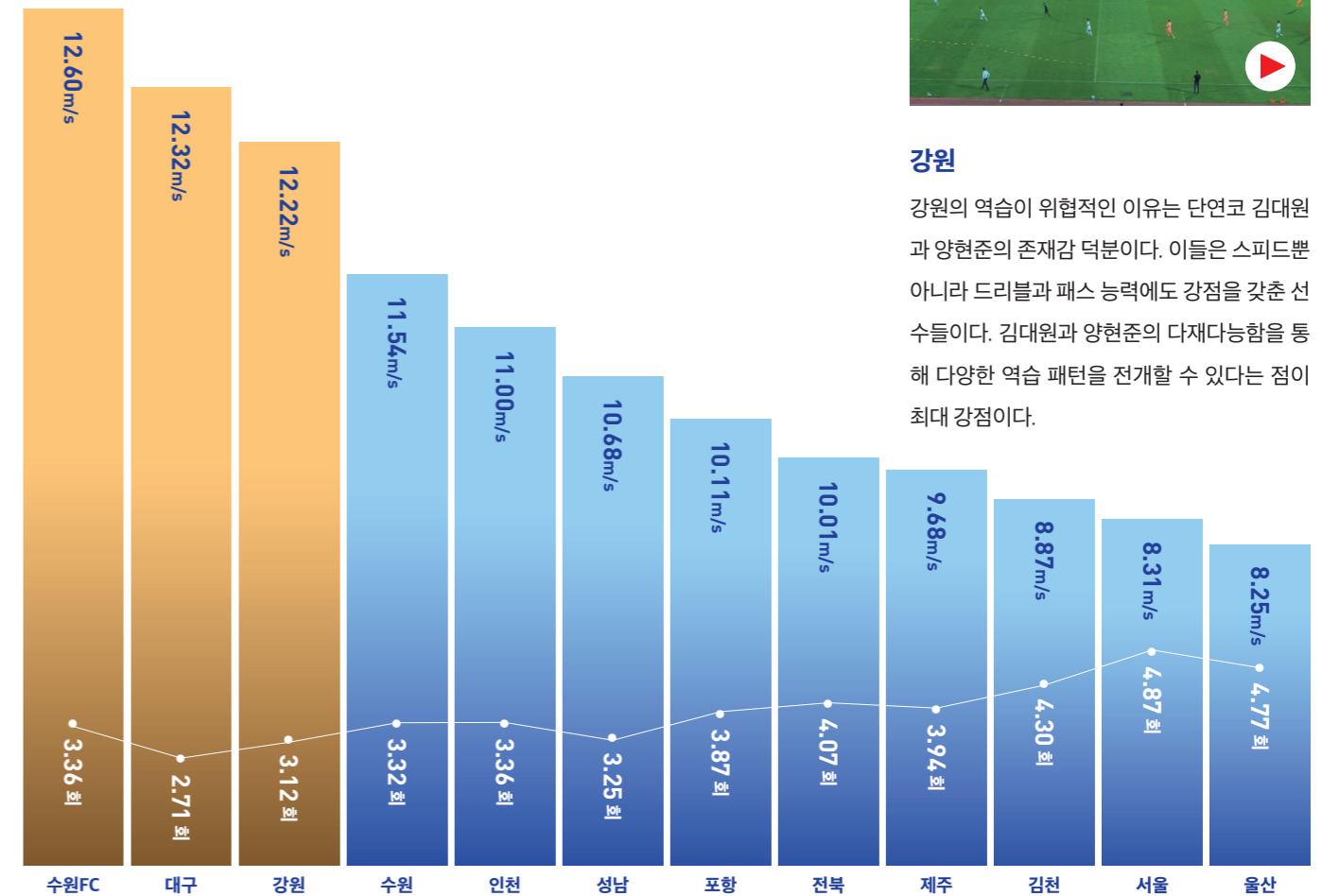
대구

대구는 올해도 K리그의 역습을 대표하는 팀이 됐다. 다만, 지난 시즌과의 차이점이라면 3-4-3 수비 형태 아래서 3톱 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중앙 공격수가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양 윙어가 빠르게 침투한다.



강원

강원의 역습이 위협적인 이유는 단연코 김대원과 양현준의 존재감 덕분이다. 이들은 스피드뿐 아니라 드리블과 패스 능력에도 강점을 갖춘 선수들이다. 김대원과 양현준의 다재다능함을 통해 다양한 역습 패턴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체 시퀀스 '*평균 다이렉트 스피드 (Avg. Direct Speed)', '*평균 패스 횟수' 수치

*시퀀스서 상대 골대 방향으로의 볼 전개 속도. 직선 이동 거리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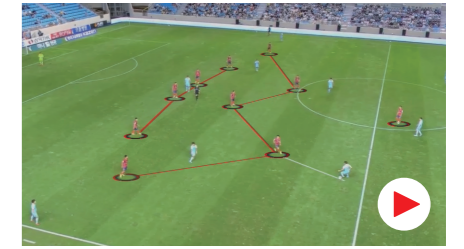
PRESSING 압박

올 시즌 K리그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더욱 강한 압박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K리그1의 PPDA(압박 강도)는 10.66에서 9.56으로, K리그2의 PPDA는 9.35에서 7.81로 증가했다. (PPDA는 수치가 낮을수록 강한 압박을 의미한다.) K리그에서는 포항, 제주, 김천이 인상적인 압박 형태를 보이며 K리그 수비방식의 다양성을 더했다.



포항

이번 시즌 포항은 작년보다 수비의 무게 중심을 낮췄다. 지난 시즌에는 전방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해 상대 빌드업을 제어하는 데 치중했다면, 올해는 미드필드 1/3 지점부터 수비 블록을 형성했다. 대신 한 번에 빠른 압박을 나서 상대를 몰아넣는 구도에 강점을 보였다. 포항은 리그 내에서 2번째로 높은 '공격진영 태클'을 기록했다.



김천

김태완 감독은 지난 시즌 시상식에서 "과르디올라와 클럽의 전방 압박을 많이 봤다"라고 밝혔다. 승격팀 김천은 4번째로 높은 압박 강도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수비 지표를 남겼다. 김천은 중원 라인에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이다. 중원 라인에 많은 숫자를 둔 4-5-1 대형을 형성하며, 상대 볼을 직접 탈취하기보단 압박을 통해 수비 1/3 지역으로의 볼 투입을 제한한다.

울산	7.81
서울	8.18
제주	8.45
김천	8.52
전북	8.52
포항	8.78
성남	10.49
대구	10.55
강원	10.72
수원	10.74
인천	10.81
수원FC	11.26

PPDA (Passes allowed Per Defensive Action)

제주	126
포항	123
울산	117
서울	111
전북	108
수원FC	103
인천	100
김천	98
강원	95
수원	93
성남	91
대구	87

공격진영 태클



제주

제주는 본래 3-4-3을 주력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남기일 감독이 부임한 지난 2020년 이래로 백3 수비 라인을 줄곧 활용해왔다. K리그 2년 차를 맞이한 올해에는 4-3-3 시스템을 혼용하기 시작했다. 3-4-3(5-4-1)보다 중원 라인에 많은 숫자를 뒀 중원 압박을 가하기에 더욱 용이하다. 제주는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PPDA를 기록하며 훨씬 공격적인 수비 형태를 보였다.

BUILD UP 빌드업

압박이 강해진다면 빌드업 패턴도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단순히 롱 볼만으로 상대 압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빌드업 축구를 추구해왔던 울산은 이번 시즌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울은 본격적인 '안익수 1년 차'를 맞이했다.

전북 역시 이번 시즌 빌드업 상황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

서울은 K리그1 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유 지표를 보인 팀이다. '시퀀스당 패스'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직선 이동 거리'도 4번째로 높다. 짙은 연결성을 보이면서도, 전진 방향성을 띠는 패스를 많이 전개했다는 뜻이다. 이번 시즌 서울은 3-2-5 대형 아래 지난 시즌보다 더욱 유기적인 공격 형태를 보이며 득점을 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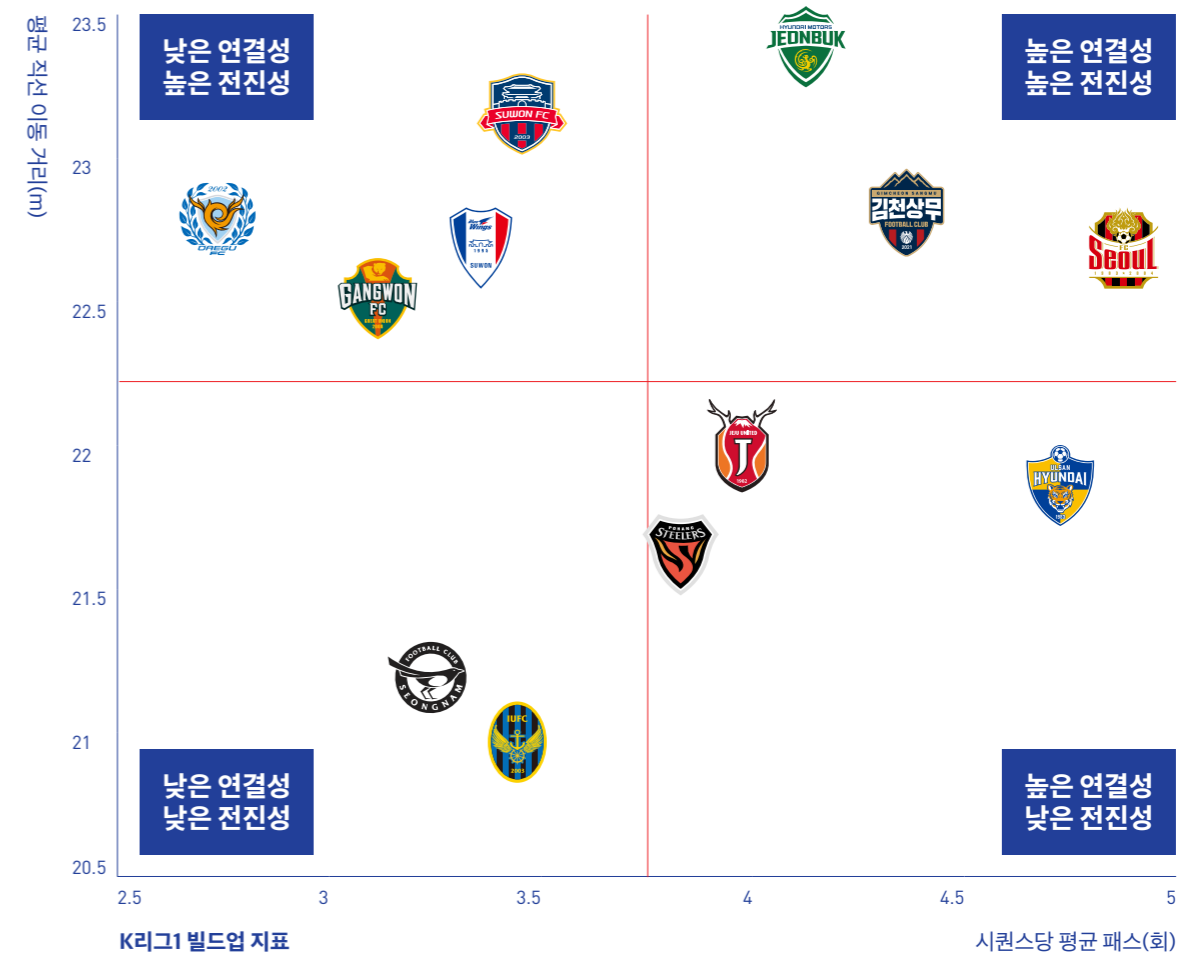
울산

울산의 특징은 선수 개개인의 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는 서울보다 낮으나, '시퀀스당 소요 시간'은 K리그1에서 가장 높다. 이번 시즌 울산은 이청용, 바코, 아마노 준이 폭넓게 움직이며 연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3선의 이규성과 박용우 역시 상황에 따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울산의 공격에 유기성을 더했다.



전북

전북은 가장 높은 '평균 직선 이동 거리'를 기록한 팀이다. 시퀀스 연결성은 서울이나 울산만큼 질진 않지만, 시퀀스 당 평균 23.3m를 전진하며 전진성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전북은 박진섭, 맹성웅, 백승호 등 킥력이 좋은 선수들을 통해 빌드업을 전개하는 편이다. 전방에는 4명의 선수를 일렬로 세워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간다.



GOALKEEPING 골키퍼

이번 시즌 K리그는 다른 해에 비해 골키퍼들이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우선 작년에 비해 골키퍼의 선방 수 자체가 줄었다. 선방률마저도 68%에서 60%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선수들의 부재도 주목해볼만 하다. 지난 시즌 최고 선방률을 기록한 강현무는 올해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베테랑 골키퍼 양한빈과 오승훈은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김동현, 황인재와 같은 선수들이 새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선방 지수’란 상대 xGOT에서 실 실점 수를 뺀 값이다. xGOT는 상대 기대득점 중 유효 슈팅에만 해당하는 수치다. xGOT에서 실 실점 수를 뺀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골키퍼가 얼마만큼의 골을 막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시즌 K리그의 선방 지수를 분석한 결과 최고의 골키퍼는 인천의 김동현이었다. 김동현은 이번 시즌 무려 7골에 가까운 득점을 막아냈다. 29.35의 xGOT 중 22실점만을 허용했다. 출전 경기 수 역시 적지 않다. 2,250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하며 25경기에 출전했다. 이번 시즌 인천은 49.36의 xGOT 값 중 단 41실점만 허용하며 구단 사상 첫 ACL 무대 진출에 크게 일조했다.

김천 역시 골키퍼 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단이다. 이번 시즌 김천은 황인재, 김정훈, 구성윤 세 골키퍼를 골고루 활용하며 K리그에서 6번째로 낮은 실점을 기록했다. (48실점)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황인재는 K리그에서 3번째로 높은 선방 지수를 기록했다. 비록 시즌 말 실점 상황에서 결정적 실수를 보이긴 했지만, 선방을 통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적도 많았다. 9경기를 소화한 김정훈 역시 80%의 선방률과 2.1의 선방 지수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단거리 골킵 (%)	중거리 골킵 (%)	장거리 골킵 (%)
2021	12.7%	13.9%	73.3%
2022	16.4%	17.0%	66.6%

K리그에 ‘골키퍼 빌드업’의 시대가 찾아오나?

이번 시즌 K리그의 흥미로운 지표 중 하나는 장거리 골킵 대신 단거리와 중거리 골킵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골킵 상황에서 단순히 롱볼을 활용하기보다 직접적인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중하위권 팀에서 단거리/중거리 골킵 비중의 상승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의 전북과 울산은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이들은 지난 시즌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의 단거리/중거리 골킵을 시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울산과 전북이 각각 단거리 골킵과 중거리 골킵에 많은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조현우는 가장 많은 단거리 골킵을, 송범근은 가장 많은 중거리 골킵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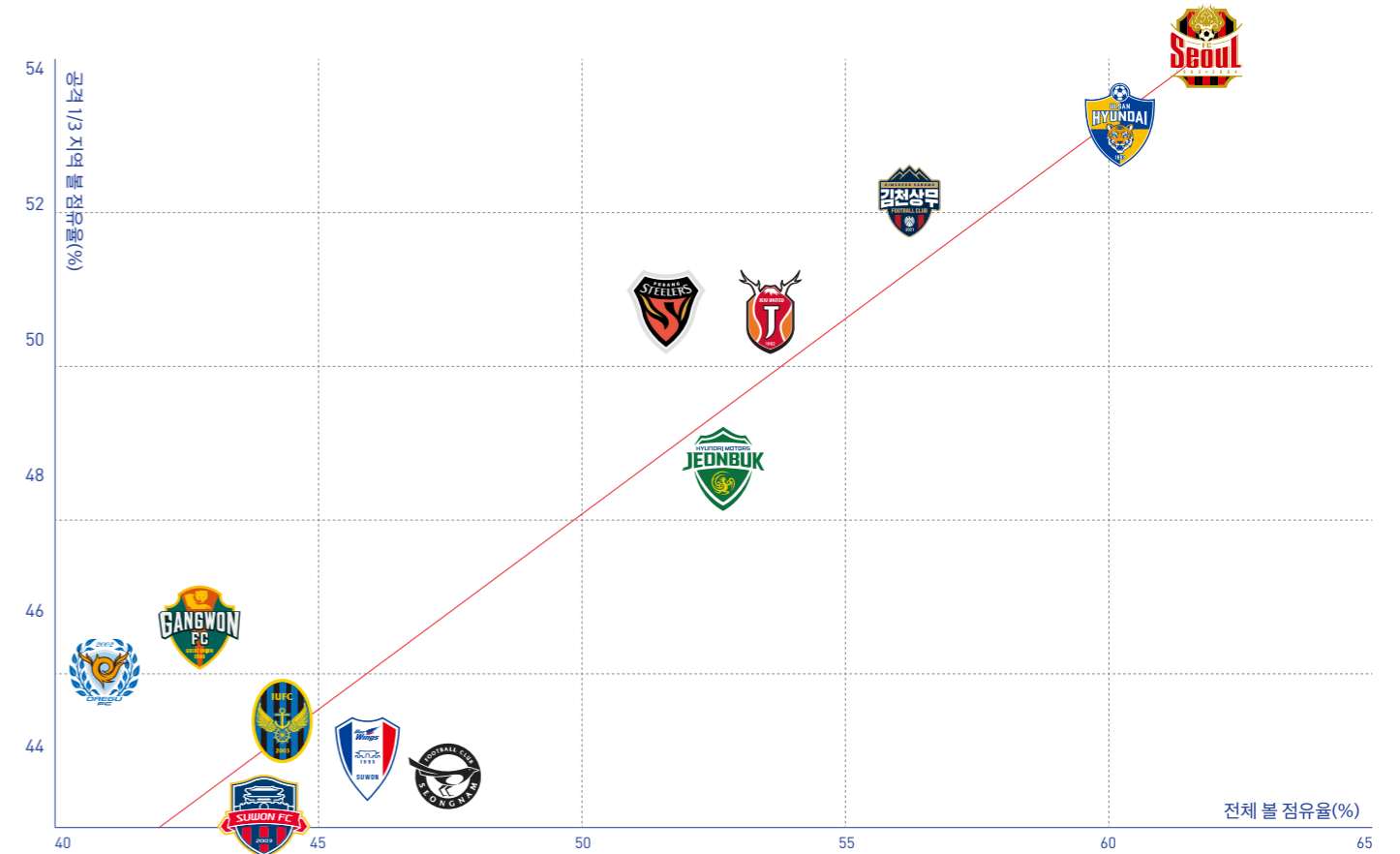
중하위권 팀에서는 서울과 김천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안익수 1년 차’가 제대로 가동된 서울의 양한빈은 2번째로 높은 단거리 골킵을 시도했다. (81회) 김천 역시 황인재, 구성윤, 김정훈 모두 골킵 상황에서부터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빌드업을 중시하던 김병수에서 최용수 체제로 전환한 강원은 반대로 단거리 골킵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시즌 강원의 이범수는 76회의 단거리 골킵을 시도하며 리그 내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에 수원, 제주, 대구에서도 단거리/중거리 골킵 비중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 발밑에 강점이 있는 골키퍼가 아니더라도, 이번 시즌부터는 만들어가는 골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K리그의 골킵 트렌드는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다.



POSSESSION 볼 점유

이번 시즌 K리그의 점유 양상에는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서울과 김천이 점유율의 상위권에 들어섰으며, 강원과 포항이 작년에 비해 수비에 많은 중심을 둔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폭의 점유율 변화를 겪은 구단은 강원이다. 이번 시즌 강원은 단 42.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보다 8.97%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K리그 점유율 지표

서울	61.9%
울산	60.5%
김천	55.6%
제주	53.6%
전북	53.4%
포항	51.6%
성남	46.2%
수원	46.0%
인천	44.1%
수원FC	43.8%
강원	42.6%
대구	40.4%

K리그 점유율 수치

이번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팀은 서울이었다. 평균 6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유율 수치다. 2021년 울산의 60.7%가 종전 기록이었으나 단 1년 만에 해당 기록을 뛰어넘는 데 성공했다. 흥미로운 팀은 전북과 강원이다. 전북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팀 중 유일하게 '공격 1/3 지역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한 타 팀에 비해 공격 지역에서 가장 적게 볼을 소유했다는 뜻이다. 이번 시즌 전북은 4-2-3-1 대형 아래 공격 라인에 4명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방에 박진섭, 맹성웅, 백승호 등 킥이 좋은 선수들을 여럿 보유한 것이 강점이다. 전북은 비교적 낮은 지점에서 볼을 소유한 이후 전방 빈 공간으로 빠르게 킥을 때리는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 골문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편 강원은 전북과 대비되는 점유 지표를 보인 팀이다. 50% 이하의 점유율 팀 중 유일하게 '공격 1/3 지역 점유율'을 46% 이상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볼을 적게 점유하더라도 뒷선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는 확연히 바뀐 전술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점유 축구를 지향했던 지난 시즌과 미드필더 구성 변화를 크게 가져가지 않은 까닭이다. 여전히 상대 압박으로부터 볼을 소유할 수 있는 황문기, 김동현, 서민우 등의 선수들이 있다. 이번 시즌 강원은 단 42.6% 만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공격 1/3 지역'에서는 46.07%를 기록했다.

CROSSING 크로스

수비 조직이 강한 K리그에서 크로스는 언제나 중요한 공격 수단이다. 중앙으로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반드시 측면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시즌 K리그는 백3를 활용하는 팀들이 줄어들면서 윙백의 크로스 숫자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시즌 평균 82.4개에서 69.3개로 줄었다.(15경기 이상 집계) 반면 공격 2선 선수들의 크로스 횟수가 증가하며 측면 공격의 비중이 윙백에서 윙어로 이동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시즌에는 김대원이 K리그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했다.(291회)

팀명	경기당 크로스 횟수	성공률
포항	25.1회	20.3%
제주	23.7회	21.9%
서울	22.1회	21.5%
울산	21.8회	19.9%
전북	21.0회	24%
강원	20.3회	20.1%
김천	20.1회	18.4%
대구	19.4회	22.6%
수원	19.3회	21.3%
성남	18.5회	22.3%
인천	18.1회	21.8%
수원FC	16.4회	23%

K리그1 크로스 지표

경기당 최다 크로스를 시도한 팀은 포항이다. 포항의 크로스 수치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지난 시즌보다 더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전체 공격 중 크로스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진 것이다. 지난 시즌 포항은 21.67개의 패스당 한 번의 크로스를 전개했으나, 올해에는 19.63개의 패스당 한 번으로 그 수치가 줄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이번 시즌 포항의 전술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시즌에는 미드필더 이승모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며 경기장 전 지역에서 골고루 볼을 소유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방에 공격수 허용준과 김승대가 들어섰으며, 양 측면을 통해 빌드업을 전개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 전문 공격수의 등장과 측면 활용 증가로 자연스레 크로스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이

다. 포항은 4-2-3-1의 두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을 폭넓게 활용하며 양 측면에서의 공격 숫자를 확보하는 편이다. 수원FC의 지표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 이번 시즌 수원FC는 리그 내에서 2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팀이다. 전방에는 라스와 김현이라는 확실한 타깃형 공격수가 있으며, 윙백 박민규와 정동호의 공격능력 역시 뛰어난 편이다. 그러나 크로스 횟수는 리그 내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수원FC의 공격 루트가 그만큼 중앙 쪽에 집중된 까닭이다. 경기당 19.8개의 크로스를 시도한 지난 시즌에는 공격 시 3-4-1-2 대형을 형성했다. 중앙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하니 상대가 중앙 지역을 수비하게 되고, 윙백이 공격적으로 움직여 자연스레 측면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후방에는 3명의 센터백을 배치해 양 윙백이 적극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수원FC의 측면 공격 루트가 열려 라스를 겨냥한 크로스가 활성화된 것이다. 반면 공격 시 백4를 형성할 때가 많은 이번 시즌에는 중앙 지역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전개하는 경우가 잦았다. 윙어 이승우는 안쪽으로 좁혀와 공간 쇄도에 집중했다. 라스와 김현은 측면 크로스보단 전방 포스트 플레이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양 윙백 역시 전진하기보단 미드필드 1/3 지점에서 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며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의 무게 중심을 중앙 쪽으로 옮긴 모습을 보였다.

04



TEAM PROFILES

* 이 장의 기록은
K리그1 정규 라운드(38경기),
K리그2 정규 라운드(40경기)를
기준으로 함

* 팀별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인증하면
KEY FEATURES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리그 1

전북현대
울산현대
포항스틸러스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강원FC

수원FC
대구FC
FC서울
수원삼성
김천상무
성남FC

K리그 2

광주FC
대전하나시티즌
FC안양
경남FC
부천FC1995
충남아산FC

서울이랜드FC
김포FC
안산그리너스
부산아이파크
전남드래곤즈



SUMMARY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전북과의 우승 경쟁에서 마침내 웃었다. 홍명보 감독은 무려 17년 만에 울산에 트로피를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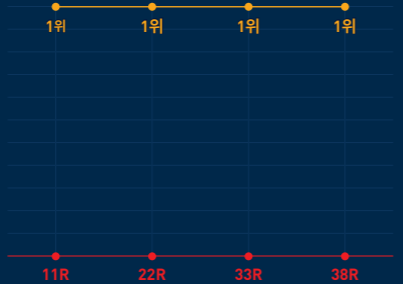


감독 | 홍명보

생년월일 | 1969. 02. 12

홍명보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22	10	6
통산	43	21	12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22승 10무 6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조수혁	3	237	0	2	
	조현우	36	3,412	33	9	
DF	김기희	15	1,345	0	1	
	김영권	36	3,287	0	0	
	김재성	1	12	0	0	
	김태환	30	2,798	0	3	
	설영우	34	2,879	0	3	
	오인표	3	136	0	0	
	이명재	19	1,549	0	3	
	임종은	15	1,335	1	1	
	정승현	5	486	0	0	
	MF	고명진	7	443	0	0
		김민준	19	573	1	0
		김성준	3	106	0	0
		바코	37	3,003	8	1
		박용우	31	2,521	0	0
산형민		5	183	0	0	
아마노		30	2,198	9	1	
엄원상		33	2,347	12	6	
원두재		21	1,446	0	0	
이규성		31	2,414	1	1	
FW	레오나르도	34	2,404	11	4	
	마틴 아담	14	842	9	4	
	박주영	6	196	0	0	
	윤일록	14	705	1	1	

AVERAGES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60.5% 공격 1/3 53.1%(2nd)
미드필드 1/3 61.5%(2nd)
수비 1/3 57.9%(2nd)

패스 횟수 **597** 회 (2nd)
패스 성공률 **88.0%** (1st)
키 패스 **6.8** 회 (6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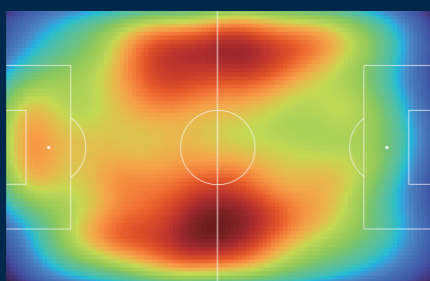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78** 회(13%)
중거리 패스(15m~30m) **201** 회(34%)
단거리 패스(15m 이내) **318** 회(53%)

볼 관여 평균 위치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7.8 (1st)	16.4 회 (2nd)

볼 획득 히트맵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8.5 세 (1st)	56 회	0 회	2 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슈트	xG
엄원상	12골	36회	7.7골
레오나르도	11골	32회	12.9골
마틴 아담	9골	13회	5.4골
	도움	키패스	크로스
엄원상	6회	33회	67회
마틴 아담	4회	14회	0회
레오나르도	4회	28회	21회

TEAM STATS

특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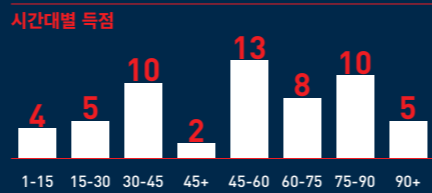
5 골 (9%)
15 골 (26%)
11 골 (19%)
12 골 (21%)

박스 밖 **7** 골(12%)

7 골(12%) PK
0 골(0%) 자책골
57 골 총

실득점	기대득점	실실점	기대실점
57 골 (1st)	58.8 골 (1st)	33 골 (12th)	32.9 골 (12th)

실득점(실실점): 전체 득점(실점)에서 자책골 득점(실점) 제외



슈팅 시퀀스	394 개(2nd)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4.2 회(1st)
슈팅 시퀀스 비율	8.4% (1st)

KEY FEATURES

- GK 빌드업시 공격 2선 쪽에서의 수적 우위 경향. 3MF는 자유로운 3선 점유.
- 선수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바코, 이청용, 아마노 연계 집중하여 공격 옵션 창출.
-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폭 넓은 움직임 통한 볼 점유.
- 마틴 아담 합류 이후 1선 타겟맨 활용 옵션 추가.
- 수비시 4-4-2, 4-5-1 대형. 타이튼한 간격, 압박 구도로의 빠른 전환.
- 공격 1/3 지점에서의 수비 전환 강점. 빠르고 즉각적인 압박.
- 경기 중반 견고한 수비 조직력. 마지막 15분 최소 실점 팀. (5실점)



SUMMARY

시즌 초반 부진하는 사이 울산에 내준 1위 자리를 끝내 되찾지 못했다. K리그1 우승엔 실패했으나 FA컵 정상에 오르며 무관을 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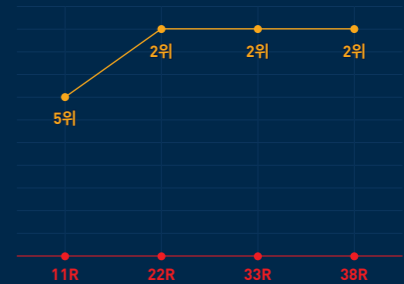


감독 | 김상식

생년월일 | 1976. 12. 17

김상식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21	10	7
통산	43	20	13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21승 10무 7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준호	2	20	1	0	
	송범근	35	3,362	34	12	
	이범수	3	277	1	1	
DF	구자룡	15	741	1	0	
	김문환	28	2,519	1	2	
	김진수	31	2,639	2	3	
	노윤상	1	6	0	0	
	박성현	1	47	0	0	
	박진섭	33	2,934	2	0	
	박진성	12	625	0	0	
	윤영선	20	1,654	0	0	
	이용	8	593	0	0	
	최보경	7	539	0	0	
	최철수	17	1,162	0	0	
	홍정호	19	1,705	1	2	
	MF	강상운	15	551	0	0
		김보경	25	1,601	2	3
		김진규	26	1,809	2	1
		류재문	20	1,622	1	1
		맹성웅	17	1,283	0	2
바로우		28	2,156	13	6	
백승호		30	2,651	2	5	
이승기		16	611	0	1	
이지훈		2	36	0	0	
FW	쿠니모토	14	1,133	4	1	
	한교원	20	1,077	5	0	
	한승규	1	64	0	0	
	구스타보	34	2,030	8	4	
	김승대	1	54	0	0	
	문선민	23	999	1	2	
	박규민	9	284	1	0	
	송민규	22	1,573	3	3	
GK	이윤권	5	100	0	0	
	이준호	5	169	0	0	
	일류첸코	17	981	2	0	
	조규성	8	642	4	1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5.0 세 (9th)	61 회	0 회	1 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슈트	xG
바로우	13골	21회	6.9골
구스타보	8골	30회	10.0골
한교원	5골	11회	5.6골
	도움	키패스	크로스
바로우	6회	29회	93회
백승호	5회	34회	101회
구스타보	4회	25회	28회

AVERAGES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53.5% 공격 1/3 48.8%(6th)
미드필드 1/3 53.2%(5th)
수비 1/3 54.9%(3rd)

패스 횟수 **495** 회 (5th)
패스 성공률 **84.8%** (4th)
키 패스 **7.2** 회 (2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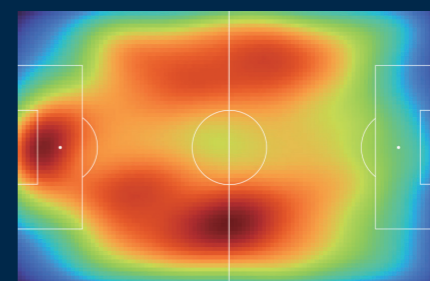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68** 회(13%)
중거리 패스(15m~30m) **179** 회(34%)
단거리 패스(15m 이내) **247** 회(53%)

볼 관여 평균 위치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8.5 (5th)	14.7 회 (4th)

볼 획득 히트맵



TEAM STATS

특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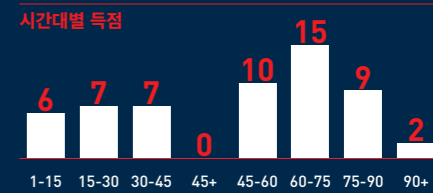
11 골 (20%)
10 골 (18%)
16 골 (29%)
6 골 (11%)

박스 밖 **6** 골(11%)

6 골(11%) PK
1 골(2%) 자책골
56 골 총

실득점	기대득점	실실점	기대실점
55 골 (2nd)	56.5 골 (2nd)	36 골 (11th)	50.9 골 (6th)

실득점(실실점): 전체 득점(실점)에서 자책골 득점(실점) 제외



슈팅 시퀀스	359 개(7th)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3.5 회(5th)
슈팅 시퀀스 비율	7.9% (7th)

KEY FEATURES

- 빌드업시 4-2-3-1. 2MF 진영에 윙백이나 공격형 미드필더 합류하여 옵션 확보.
- 후방에 킥 좋은 자원 다수 보유. 킥력 강한 득점 기회 창출에 강점.
- 공격시 전방에 4명의 선수 일렬 배치, 상대 수비 라인과의 1v1 구도 활용.
- 수비시 4-4-2 대형. 타이튼한 간격, 2톱의 폭 넓은 수비 범위.
- 바로우, 조규성, 한교원 등 역습에 뛰어난 자원 다수 보유.
- 시즌 중 백3, 4-3-3, 4-2-2-2 등 다양한 전술 활용.



SUMMARY

신진호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사이, 김기동 감독과 그의 아이들은 짜임새 있는 플레이로 포항은 견재함을 알렸다. 3위로 시즌을 마치며 다음 시즌 ACL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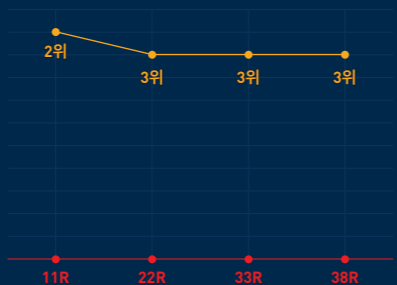


감독 | 김기동

생년월일 | 1972. 01. 12

김기동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16	12	10
통산	57	34	42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6승 12무 10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현무	20	1,879	24	5
	류원우	1	48	0	0
	윤평국	18	1,724	17	6
DF	강상우	1	49	0	0
	그랜트	27	2,432	2	0
	김용환	21	848	0	1
	박건	1	20	0	0
	박승욱	29	2,572	0	2
	박찬용	33	3,015	0	0
	심상민	29	2,382	0	0
	이광준	3	124	0	0
	하창래	8	757	0	0
	MF	고영준	37	2,859	6
김준호		7	104	0	0
노경호		4	82	1	0
신광훈		33	2,635	0	2
신진호		32	2,960	4	10
윤민호		2	70	0	0
이수빈		32	1,952	0	1
이승모		27	1,841	1	3
조재훈		2	15	0	0
FW	권기표	2	54	0	1
	김승대	27	1,496	6	1
	김지민	2	39	0	0
	모세스	13	484	1	0
	완델손	27	1,536	2	1
	이광혁	21	939	1	0
	이호재	16	227	1	0
	임상협	36	2,798	8	2
	정재희	37	2,134	7	3
	팔라시오스	1	75	1	0
허용준	30	1,947	10	5	

AVERAGES

점유율

51.6% 공격 1/3 50.6%(4th)

미드필드 1/3 51.9%(6th)

수비 1/3 54.6%(4th)

지역별 점유율

패스 횟수 **493회** 6th

패스 성공률 **84.0%** 6th

키 패스 **6.6회** 8th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77회**[16%]

중거리 패스(15m~30m) **170회**[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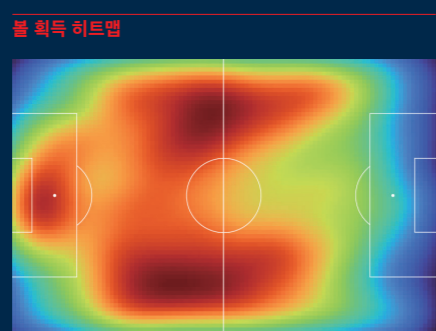
단거리 패스(15m 이내) **246회**[50%]

볼 관여 평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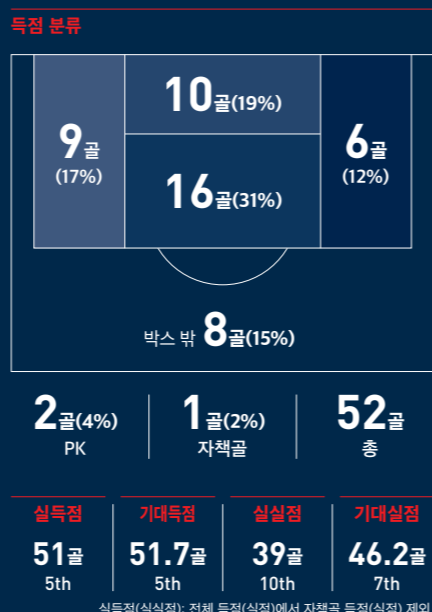


PPDA(압박 강도) **8.8** 6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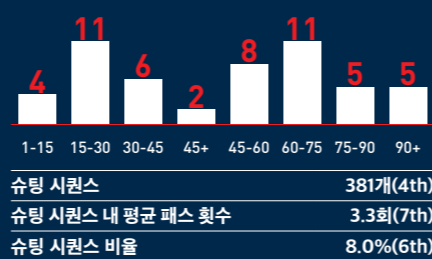
공격지역 획득 **14.7회** 5th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KEY FEATURES

- 빌드업시 4-2-3-1. 양 윙백과 미드필더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통한 공간 점유.
- 측면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콤비네이션 플레이 시도.
- 공격시 3선 2MF의 폭 넓은 활동 범위. 볼 주위 지역에 계속 위치하며 숫자 확보.
- 전방 공격 라인의 역동적인 움직임 통한 옵션 확보.
- 수비시 4-4-2 대형. 중앙 옵션 제한, 측면MF의 폭 넓은 활동 범위.
- 측면MF가 터치라인 지역 커버하는 경향. 이에 따른 하프 스페이스 노출 문제.

평균 연령 **26.1세** 7th

경고 **80회**

경고 2회 **2회**

퇴장 **0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슈트	xG
허용준	10골	25회	10.0골
임상협	8골	23회	7.4골
정재희	7골	24회	9.4골
	도움	키패스	크로스
신진호	10회	48회	234회
허용준	5회	22회	36회
고영준	4회	7회	18회



SUMMARY

조성환 감독의 인천은 흔들림이 없었다. 시즌 중반 주전 공격수 무고사가 떠나기도 원팀으로 공백을 채웠다. 시즌을 4위로 마쳤지만 FA컵 결과 덕에 사상 첫 ACL 출전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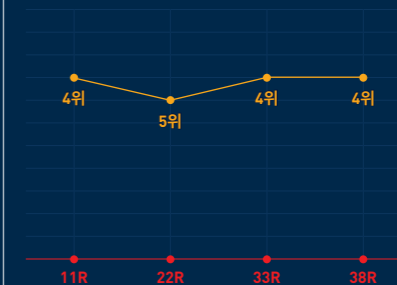


감독 | 조성환

생년월일 | 1970. 10. 16

조성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13	15	10
통산	93	67	85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3승 5무 10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동현	25	2,404	22	9
	민성준	1	94	2	0
	이태희	12	1,167	18	2
DF	강민수	25	2,029	0	0
	강윤구	17	1,162	0	2
	김광석	17	1,315	0	0
	김동민	32	2,817	0	1
	김준엽	25	2,103	1	2
	김창수	12	279	0	0
	델브리지	33	2,845	0	1
	오반석	13	1,083	0	0
	오재석	3	257	0	1
	이주용	10	808	0	0
MF	김도혁	34	2,489	2	3
	김성민	12	597	1	0
	민경현	30	2,041	1	0
	박창환	10	181	0	0
	박현빈	1	44	0	0
	아길라르	32	2,110	0	3
	여름	14	921	0	0
	이강현	22	1,213	2	1
	이동수	31	1,191	1	0
FW	이명주	34	2,883	4	5
	정혁	4	87	0	0
	김대중	3	50	1	0
	김민석	5	232	3	1
	김보섭	34	2,385	5	4
	무고사	18	1,601	14	0
	송시우	29	1,107	4	0
	에르난데스	8	577	4	4
	이용재	20	849	1	2
이준석	1	46	0	0	
홍시후	28	1,198	1	1	

평균 연령 **28.0세** 3rd

경고 **63회**

경고 2회 **2회**

퇴장 **2회**

PLAYER STATS

이름	득점	유효슈트	xG
무고사	14골	28회	9.5골
김보섭	5골	22회	4.8골
에르난데스	4골	8회	3.1골
	도움	키패스	크로스
이명주	5회	24회	76회
에르난데스	4회	13회	6회
김보섭	4회	21회	77회

AVERAGES

점유율

44.1% 공격 1/3 45.1%(9th)

미드필드 1/3 44.8%(8th)

수비 1/3 48.0%(9th)

지역별 점유율

패스 횟수 **422회** 7th

패스 성공률 **80.6%** 7th

키 패스 **6.4회** 9th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58회**[14%]

중거리 패스(15m~30m) **129회**[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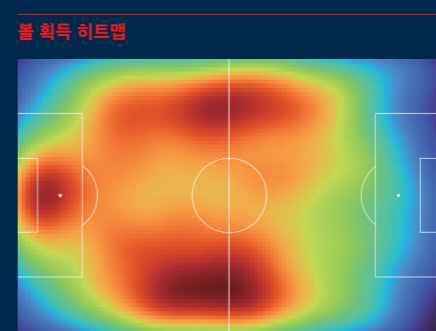
단거리 패스(15m 이내) **235회**[56%]

볼 관여 평균 위치



PPDA(압박 강도) **10.8** 11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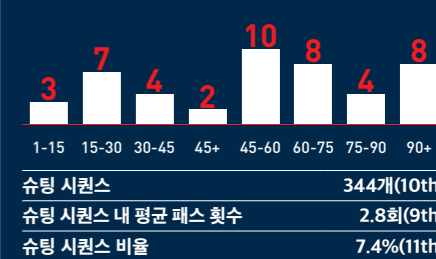
공격지역 획득 **12.2회** 12th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KEY FEATURES

- 빌드업시 3-4-3. 전방 공격 라인의 적극적인 지원 가담 통한 옵션 창출
- 공격시 아길라르의 폭 넓은 활동 범위. 경기장 전 지역에서의 연결 고리.
- 에르난데스, 김보섭, 홍시후 등 역습시 3톱 쪽에서의 빠른 스피드.
- 수비시 5-4-1. 미드필더 라인의 활용 방식 통한 유연한 운영.
- 최고 수준의 골키퍼 선방 능력. 'xGOT - 실 득점' 값이 가장 높은 팀.
- 빌드업시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데 미흡한 문제.



SUMMARY

남기일 감독이 제주에서 선보인 압박 축구는 여전히 뛰어난 개성을 자랑했다. 다만 시즌 막바지에는 무더진 창끝에 허덕이며 파이널A 진입에만 만족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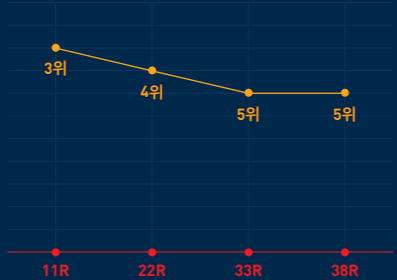


감독 | 남기일

생년월일 | 1974. 08. 17

남기일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14	10	14
통산	125	97	112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10무 14패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근배	4	390	4	1	
	김동준	32	3,042	38	8	
	유연수	3	242	8	0	
DF	김경재	18	1,322	0	0	
	김명순	16	409	0	0	
	김오규	30	2,773	1	0	
	김주현	1	47	0	0	
	안태현	4	318	0	1	
	이정문	1	14	0	0	
	이지솔	16	384	0	0	
	정우재	28	2,355	0	1	
	정운	32	3,069	0	2	
	홍성욱	5	96	0	0	
	MF	구자철	9	240	1	1
		김규형	6	56	0	0
김봉수		33	2,633	0	1	
안현범		30	2,602	1	0	
윤빛가람		15	1,143	3	2	
이창민		31	2,542	3	4	
FW	최영준	36	3,355	0	1	
	한중무	14	553	1	0	
	김범수	15	472	1	0	
	김주공	31	1,537	5	4	
	변경준	12	216	0	0	
	서진수	8	647	4	0	
제르소	37	2,837	8	7		
조나탄 링	28	1,425	5	2		
조성준	30	1,818	0	5		
주민규	37	2,810	17	7		
진성욱	19	882	2	1		
추상훈	8	178	0	0		

AVERAGES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53.7%	공격 1/3 50.5% [4th] 미드필드 1/3 54.5% [5th] 수비 1/3 52.5% [4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키 패스
527 회 4th	84.3% 5th	7.6 회 1st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67회 [13%]
중거리 패스(15m~30m)	167회 [32%]
단거리 패스(15m 이내)	293회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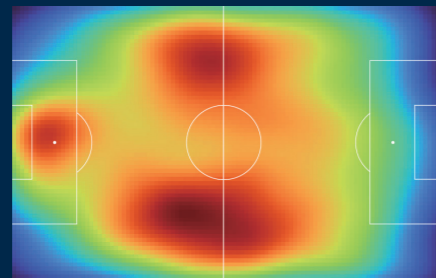
볼 관여 평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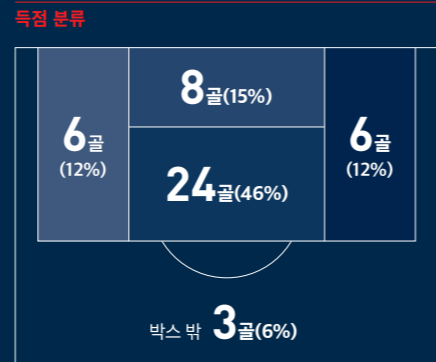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4R vs 수원FC)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8.5 3rd	17.7 회 1st

볼 획득 히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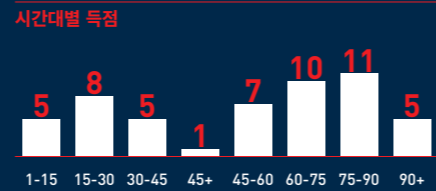
TEAM STATS



5골(10%) PK	0골(0%) 자책골	52골 총
------------	------------	-------

실득점	기대득점	실실점	기대실점
52골 4th	56.0골 3rd	47골 7th	43.5골 10th

실득점(실실점): 전체 득점(실점)에서 자책골 득점(실점) 제외



슈팅 시퀀스	412개(1st)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4.0회(3rd)
슈팅 시퀀스 비율	8.2%(2nd)

KEY FEATURES

- 1 빌드업시 4-2-3-1. 중원 미드필더를 통해 풀어 나가는 경향.
- 2 공격시 1선 선수들의 연속적인 공간 설투 시도.
- 3 밀집 수비 상대시 선수 개개인의 자유로운 움직임, 유기적인 역할 분담.
- 4 수비시 4-5-1. 중앙 3MF 쪽에서의 적극적인 압박 통해 빌드업 제한.
- 5 5-4-1 수비 역시 능숙. 5-4-1 팀 단위적인 중앙 옵션 제한.
- 6 수비 전환시 측면 뒷공간 허용하는 문제.



SUMMARY

최용수 감독이 강원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양현준, 김대원이 스타로 발돋움했다. 강등을 걱정했던 지난 시즌을 완전히 잊고 파이널A라는 대업을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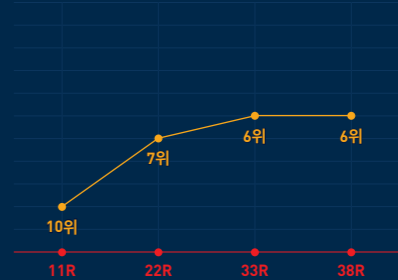


감독 | 최용수

생년월일 | 1973. 09. 10

최용수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14	7	17
통산	138	74	87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4승 7무 17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정호	3	160	5	0	
	이상훈	35	3,341	45	9	
	이광연	2	136	2	0	
DF	김영민	36	3,448	4	0	
	김원규	3	81	0	0	
	김진호	28	2,307	3	2	
	윤석영	32	2,797	1	2	
	이용희	11	230	0	0	
	임창우	37	3,487	2	1	
	정승용	38	3,504	2	1	
	츠베타노프	6	99	0	0	
	케빈	21	1,020	1	0	
	MF	강지훈	10	937	0	1
		김대우	16	541	1	0
		김동현	33	2,941	0	1
서민우		38	2,936	0	1	
양현준		36	2,910	8	4	
FW	코바야시	12	694	0	1	
	한국영	6	291	0	0	
	황문기	34	1,247	3	0	
	갈레오	14	386	3	0	
	고무열	1	25	0	0	
	김대원	37	3,287	12	13	
	김주형	1	5	0	0	
	디노	5	264	2	0	
	박경배	4	86	0	0	
박상혁	4	85	0	0		
발사	18	610	2	0		
신창우	7	147	0	0		
이정협	31	1,960	5	1		
홍석환	2	45	0	0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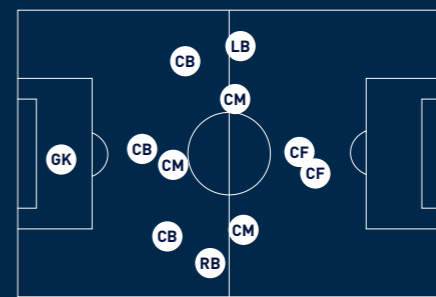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42.6%	공격 1/3 46.1% [7th] 미드필드 1/3 42.8% [11th] 수비 1/3 45.2% [11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키 패스
392 회 11th	78.8% 11th	5.8 회 12th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68회 [17%]
중거리 패스(15m~30m)	139회 [35%]
단거리 패스(15m 이내)	185회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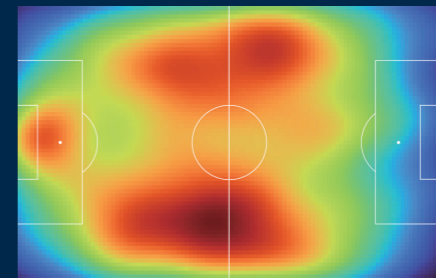
볼 관여 평균 위치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1R vs 성남)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10.7 9th	14.1 회 6th

볼 획득 히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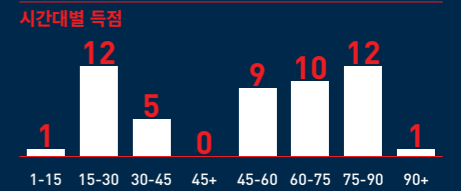
TEAM STATS



3골(6%) PK	1골(2%) 자책골	50골 총
-----------	------------	-------

실득점	기대득점	실실점	기대실점
49골 7th	41.1골 11th	51골 4th	45.3골 9th

실득점(실실점): 전체 득점(실점)에서 자책골 득점(실점) 제외



슈팅 시퀀스	316개(12th)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2.9회(8th)
슈팅 시퀀스 비율	6.8%(12th)

KEY FEATURES

- 1 빌드업시 3-4-3. 원어, 윙백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원어 연계 쪽 집중.
- 2 경기장을 폭 넓게 활용하는 성향. 적극적인 반대 전환 시도.
- 3 정승용, 김진호 등 윙백을 통한 상대 뒷공간 공략.
- 4 수비시 5-4-1. 선수 개개인의 수비 의식이 매우 뛰어난 편.
- 5 역습시 김대원과 양현준의 스피드를 적극 활용.
- 6 코너킥 실점 비중 최다. 전체 52실점 중 11골(21.1%)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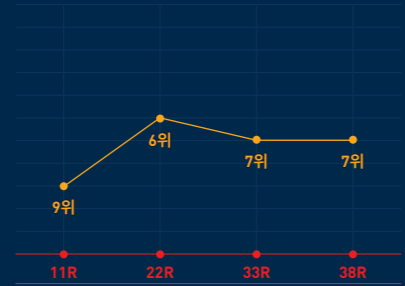
SUMMARY

김도균 감독의 수원FC는 여전히 강했다. 이승우 영입이라는 승부수도 성공적이었다. 2년 연속 파이널A 진입엔 실패했지만 조기 잔류로 최소한의 성과는 거뒀다.



감독 김도균			
생년월일 1977. 01. 13			
김도균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13	9	16
통산	44	22	38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3승 9무 16패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박배중	25	2,413	37	5	
	유현	11	1,062	19	2	
	이범영	2	191	7	0	
DF	곽윤호	29	1,963	0	1	
	김동우	15	1,134	1	0	
	김상원	7	399	0	0	
	김주엽	9	317	0	1	
	박민규	35	3,160	1	1	
	박주호	32	2,753	0	1	
	신세계	27	2,178	0	1	
	신재원	7	270	0	0	
	이웅	13	1,212	0	2	
	잭슨	21	1,797	2	1	
	정동호	21	1,370	2	0	
	MF	강준모	2	36	0	0
김건웅		36	3,245	2	2	
니실라		22	1,057	2	2	
무릴로		23	1,532	1	5	
이기혁		20	648	0	1	
장혁진		21	1,087	1	1	
정재웅		34	2,177	5	2	
황순민		9	436	0	1	
FW		김승준	32	1,501	5	2
		김현	31	1,752	8	1
	라스	34	2,580	8	7	
	박상명	5	191	0	1	
	양동현	8	237	0	0	
	이승우	35	2,748	14	3	
	이영준	16	418	1	1	
	정재웅	11	182	0	1	
	정재운	12	167	1	0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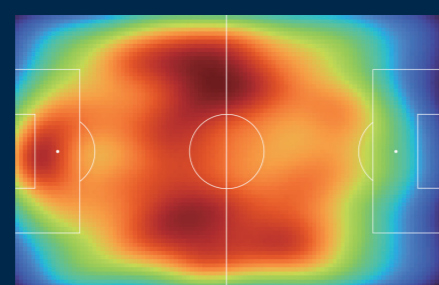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43.8%	공격 1/3 44.2% [12th]	
	미드필드 1/3 44.5% [10th]	
	수비 1/3 47.3% [10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키 패스
411 회	79.0%	6.9 회
8th	10th	5th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70 회[17%]	
중거리 패스(15m~30m)	138 회[34%]	
단거리 패스(15m 이내)	203 회[49%]	

볼 관여 평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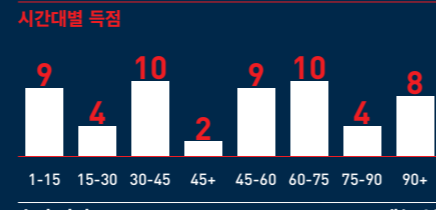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11.3	14.0 회
12th	8th

볼 획득 히트맵



TEAM STATS



슈팅 시린스	347개(9th)
슈팅 시린스 내 평균 패스 횟수	3.5회(6th)
슈팅 시린스 비율	7.7%(9th)

KEY FEATURES

- 공격 1/3 지점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 선수 개인 능력 적극 활용.
- 중앙 공격의 비중이 높은 편. 중앙 쪽에서 적극적인 콤비네이션 플레이 시도.
- 김현(190cm) - 라스(197cm) 2톱 활용시 공중볼 상황에서 큰 강점.
- 수비시 4-3-2-1, 4-5-1, 4-4-2, 3-5-2 등 유동적인 대형 활용.
- 역습시 winger 쪽의 스피드 적극 활용.
- 수비시 박스 부근 지점에서 집중력이 좋지 못한 문제.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8.3 세	50 회	1 회	2 회
2nd			

PLAYER STATS

	득점	유효샷	xG
이승우	14골	22회	7.5골
김현	8골	17회	5.6골
라스	8골	32회	9.6골
	도움	키패스	크로스
라스	7회	33회	21회
무릴로	5회	24회	84회
이승우	3회	38회	5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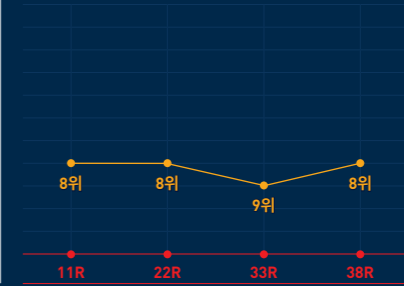
SUMMARY

'죽다 살았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즌을 보낸 대구다. 강등 위기를 겪었지만 파이널 라운드에서 3승 2무라는 막판 뒤집기로 1부 무대에 살아남았다.



감독 최원권(대행)			
생년월일 1981. 11. 08			
최원권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5	4	2
통산	5	4	2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10승 16무 12패



주요 포메이션 | 3-5-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오승훈	36	3,465	53	9
	이윤오	1	97	4	0
	최영은	2	118	2	0
DF	김우석	10	496	0	1
	김진혁	26	2,423	2	1
	박병현	12	753	0	0
	이원우	4	93	0	0
	이진용	33	2,567	0	0
	이태희	13	615	0	1
	장성원	21	1,065	0	2
	정태욱	36	3,323	1	1
	조진우	26	2,181	2	1
	케이타	27	1,407	0	0
	홍정은	25	2,162	2	0
	홍철	28	2,109	0	1
	황재원	34	2,906	1	3
MF	고재현	32	2,586	13	2
	김희승	11	633	0	0
	라마스	18	1,649	3	1
	오후성	8	217	1	0
FW	이용래	28	1,379	0	1
	최민기	1	17	0	0
	페나	10	829	1	1
	김태양	1	17	0	0
	박용희	3	150	0	0
	세징야	29	2,565	12	6
	안용우	12	488	2	2
	에드가	5	356	1	0
	이근호	31	909	2	0
	정치민	16	450	0	0
제카	28	2,430	7	7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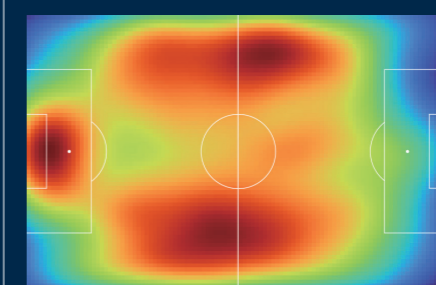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40.4%	공격 1/3 40.4% [12th]	
	미드필드 1/3 45.9% [8th]	
	수비 1/3 44.1% [12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키 패스
339 회	76.3%	7.1 회
12th	12th	3rd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64 회[19%]	
중거리 패스(15m~30m)	113 회[33%]	
단거리 패스(15m 이내)	163 회[48%]	

볼 관여 평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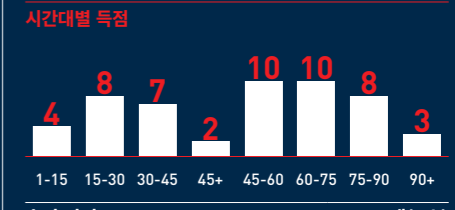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10.6	13.5 회
8th	10th

볼 획득 히트맵



TEAM STATS



슈팅 시린스	371개(6th)
슈팅 시린스 내 평균 패스 횟수	2.5회(11th)
슈팅 시린스 비율	8.0%(4th)

KEY FEATURES

- 공격시 간결한 전개, 적극적인 크로스. 전체 패스 중 크로스 비중 최대 (5.7%)
- 3톱 명확한 역할 분담. 제카 타겟맨 활용, 고재현 공간 쏘도 집중.
- 수비시 5-4-1. MF라인과 윙백 간의 명확한 지역 분담.
- 역습시 winger의 적극적인 공간 침투. 중앙 공격수 연결 고리 역할.
- 가마 감독 시절 센터백의 넓은 간격 통한 측면 수적 우위 활용.
- 가마 감독 시절 수비 문제 다. 전방 압박 미흡, 벌어지는 수비 간격.



SUMMARY

K리그2 최초로 ACL에 나섰지만 독이 됐다. 전남은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내리 하락세를 걷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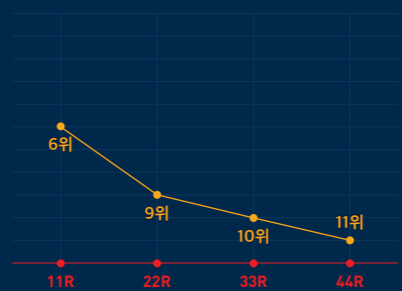


감독 | 이장관

생년월일 | 1974. 07. 04

이장관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2	2	12	9
통산	2	12	9

성적추이 | 정규 라운드 6승 17무 17패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장수	출장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다솔	27	2,606	36	4
	오찬식	1	94	3	0
	임민혁	12	1,153	19	1
DF	고태원	27	2,356	2	0
	김수범	16	1,196	0	1
	김영욱	2	53	0	0
	김태현	37	3,439	1	2
	박성결	9	487	1	1
	손호준	13	480	1	0
	여승원	13	627	0	0
	유지하	1	16	0	0
	이규혁	10	662	0	0
	이선결	1	63	0	0
	장순혁	20	1,762	0	0
	최정원	21	1,743	0	0
	최호정	7	364	0	0
	최희원	6	297	0	0
	한호강	15	1,047	0	0
MF	김현욱	29	2,466	2	1
	유해이	36	2,923	1	4
	이석현	12	735	0	0
	이후권	31	2,352	3	1
	장성재	21	1,793	1	2
	전승민	34	2,025	3	1
	정호진	10	554	0	0
	김건오	2	51	0	0
FW	박인혁	38	2,554	7	0
	박희성	10	434	0	0
	발로텔리	28	1,940	7	4
	서명원	1	31	0	0
	이중민	26	1,236	5	2
	임찬울	29	1,784	5	5
	정우빈	5	85	0	0
	최성진	3	67	0	0
	추상훈	11	348	0	0
	카차라바	10	490	2	0
	플라나	30	1,842	6	1
	한석희	3	139	0	0

평균 연령	경고	경고 2회	퇴장
26.0세 5th	57회	2회	1회

PLAYER STATS

	득점	유효슈트	xG
박인혁	7골	29회	10.7골
발로텔리	7골	19회	9.2골
플라나	6골	16회	6.2골
	도움	키패스	크로스
임찬울	5회	30회	56회
발로텔리	4회	16회	30회
유해이	4회	42회	142회

AVERAGES

점유율	지역별 점유율	
53.6%	공격 1/3 51.3%(5th)	
	미드필드 1/3 53.3%(3th)	
	수비 1/3 53.0%(4th)	
패스 횟수	패스 성공률	키 패스
457회 3rd	81.4% 2nd	6.8회 7th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30m 이상)	78회(13%)	
중거리 패스(15m~30m)	201회(34%)	
단거리 패스(15m 이내)	318회(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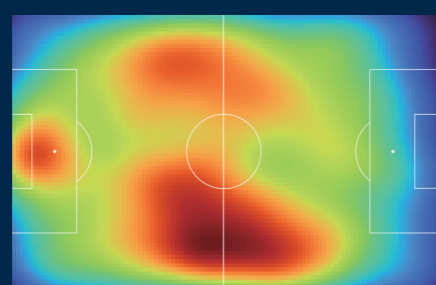
볼 관여 평균 위치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22R vs 김포)

PPDA(압박 강도)	공격지역 획득
7.6 6th	15.6회 4th

볼 획득 히트맵



TEAM STATS

특정 분류	득점	실득점	기대득점	실실점	기대실점
	7골(15%)	47골 7th	56.3골 6th	56골 4th	54.8골 5th
	4골(9%)	실득점(실실점): 전체 득점(실점)에서 자책골 득점(실점) 제외			
	8골(17%)	시간대별 득점			
	16골(34%)	4, 8, 8, 1, 8, 7, 9, 2			
	박스 밖 7골(15%)	슈팅 시킨스 402개(5th)			
	5골(11%) PK	슈팅 시킨스 내 평균 패스 횟수 3.1회(2nd)			
	0골(0%) 자책골	슈팅 시킨스 비율 7.6%(4th)			
	47골 총	KEY FEATURES			

KEY FEATURES

- 1 빌드업시 4-4-2. 측면 진영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 활용.
- 2 공격시 윙백-윙어의 높은 위치 점유. 이를 통한 측면 쪽에서의 수적 우위 형성.
- 3 1선 롱 볼시 전방 공격 라인 통한 세컨볼 경합.
- 4 수비시 4-4-2, 4-5-1. MF라인에서의 압박 통한 상대 전진 패스 옵션 제한.
- 5 상대 측면 전개시 압박 반응이 뛰어난 편.
- 6 후반전 실점 비중 최다. (62.1%) 후반들어 수비 조직력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2 K리그 기술보고서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시오

인터뷰 및 교정 | 김진엽 기자

사진 | FА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A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K LEAGUE

2022 K리그 기술보고서

1Q 원큐



하나1Q 원큐 K LEAGUE 2 2022

WINNERS



광주FC

₩100,000,000

